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의 내용

1. 개혁 신앙의 좋은 점과 문제점
2. 나는 왜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1부, 2부)
3. 루터와 칼빈의 흑역사
4.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그리고 국가 교회, 이단 사냥
5. 아르미니우스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탄생
반박: 자세한 성경적 탐구
6. 전적인 타락(믿기 전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
7. 무조건적인 선택
8. 제한 속죄
<https://www.middletownbiblechurch.org/doctrine/4wchdied.htm>
9. 저항할 수 없는 은혜
10. 성도의 견인
기타
11.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2. 성도는 한 가지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
13. 천년왕국과 재림의 여러 부분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것
14. AD 70년에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
15. 이스라엘 대체 신학
16. 성도들을 율법 아래 두는 것
제네바 성경
17.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
<https://www.middletownbiblechurch.org/dispens/literal.htm>
<https://www.middletownbiblechurch.org/dispens/litconsist.htm>
18.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
19. 로드십 구원
20. 주일과 안식일
21. 웨스트민스터 고백, 제네바 성경

데이빗 클라우드: 칼빈주의 논쟁

https://www.wayoflife.org/free_ebooks/the_calvinism_debate.php

데이브 힌트

What Love Is This?

노르만 가이슬러

Chosen But Free

Systematic Theology

Middletown Bible Church

천하무적 아르벵주의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미: 좋은 점과 문제점

딤후2:15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2-3달에 걸쳐 금요일에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개혁주의 신학과 이것의 핵심인 칼빈주의에 대한 강해, 개혁주의(칼빈주의)는 주로 장로교회가 믿으며 미국의 경우 소수의 침례교회가 믿고 있다, General Baptist, Particular Baptist 설명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주의 교회는 대개 웨슬리가 가르친 알미니안 주의 신학을 따른다.

나중에 이 두 개의 차이, 나오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다. 칼빈주의든 알미니안 주의든 성경에 맞으면 성경이 맞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다. 즉 어떤... 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따라 믿는다.

미리 밝히지만 우리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다.

이런 강해를 한다고 하니 우리가 자유 의지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자유 의지를 주장하면 펠라기우스 주의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비방한다. 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 등의 허수아비를 세우고 공격한다.

아니다. 우리는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또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다. 칼빈이나 루터를 다른 사람도 아니다.

(*) 우리는 엡2:8-10절을 믿는 사람이다.

구원에 사람의 행위가 일조하는 것 불가능, 8-9절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10절 구원받은 뒤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솔라’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다.

1.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2.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3. Sola Gratia (오직 은혜)
4. Sola Fide (오직 믿음)
5.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주제의 강해 시리즈가 필요한가?

나는 지금까지 13년 반 동안 목회를 하면서 2000여 편의 설교와 강해를 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의 모든 책 강해, 다양한 주제로 강해

교회 홈페이지 목사 컬럼: <설교 본문 게재: 내가 보는 주석과 내가 사용하는 성경 소프트웨어 소개>

2009년 4월 15일, 49,000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앨버트 반즈, 재미슨 파우셋 주석서 등이 매우 유용하고 최근에는 위어스비와 존 필립스의 주석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럭크맨, 닉스, 라킨 등의 책들도 참조합니다.

성경 본문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며 저 자신이 스스로 유익을 얻은 것들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 모든 설교에 설교문을 같이 실으면 다른 설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운 원고지만 모든 음성 설교에 원고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설교/강해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의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사 후보생이 이 원고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과 함께 성경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소개하였다. 즉 내가 참고하는 모든 자료 공개

또한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이외에 읽어야 할 책들을 내가 먼저 읽고 소개한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 5-6년 동안에는 존 파이퍼(John Piper), 존 맥아더(John MacArthur), R. C. 스프로울(R. C. Sproul), 앨버트 몰러(Albert Mohler), 웨인 그루렘, 팀 켈러, 폴 워셔(Paul Washer), 김남준 목사님 등 국내에 잘 알려진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성도들에게 소개하였다. 또

그분들이 지은 어떤 책들을 텍스트로 해서 강해도 하였다.

파이퍼: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그루뎀: 성경과 정치, 김남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분들의 책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를 주었다. 이것도 교회 사이트에 있다.

<존 파이퍼, 존 맥아더, 팀 켈러, 스티븐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을 가끔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

2018년 6월 11일, 목사 컬럼, 5300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분의 장점을 배우고 습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비롯해서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설교에 의해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설교의 열정 및 감동, 목회의 열정, 카운슬링의 지혜, 인생의 경험 적용 등,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은 그분들에게서 언제라도 얼마든지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하고 설교나 목회에 적용할 것이다.”

“생선에 가시가 많다고 하여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가시를 잘 발라먹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임을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요약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내가 소개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은 맛있는 생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생선에 맛있는 고기가 많이 들어 있지만 군데군데 가시와 뼈도 있으므로 가시와 뼈를 발라내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책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런데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의 책을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도 꼭 그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먹지만 절대로 극단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을 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요약되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런 글을 사이트에 올리고 나자 여러 사람들이 왜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소개하느냐,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다.

나의 대답 “나중에 한 번 왜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겠다”고 함

이러는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이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어서 오늘부터 설명하기로 하기로 함

칼빈주의의 문제

나는 침례교회 목사

침례교 믿음의 특징 중 하나: 사람의 말이나 신학 체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노력한다.

침례교회에는 전통적인 구원관이 있다. 그것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교회가 전체 (개신교+침례교)의 10% 이하, 소수 교단, 영향력이 매우 작다. 당연히 침례교와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복음주의 교회들이 훨씬 더 교회수도 많고 성도수도 많다.

그런데 지난 2-30년 정도, 존 파이퍼(John Piper), 존 맥아더(John MacArthur), R. C. 스프로울(R. C. Sproul), 앨버트 몰러(Albert Mohler), 폴 워셔(Paul Washer), 웨인 그루뎀, 팀 켈러 등 국내에 잘 알려진 칼빈주의자들(개혁신학자/목사들)이 칼빈주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침례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대다수 교회 내에서 여러 교회들이 갈등을 겪으며 내분이 심화됨
이러는 가운데 데이브 헛트의 책, What Love is this?가나옴. (*) 560쪽, 칼빈주의 반박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책, 데이브 헛트가 이 책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1장 왜 이 책을 쓰는가?

헛트는 유명한 복음주의 저자, 강연자, 설교자, 곳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다. 칼빈주의 목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함, 하도 오랫동안 이 말을 듣다가 결국 책을 짓기로 작정하고 560쪽 분량의 책을 저술하고 영상을 찍어 알림. 칼빈주의 관련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룸

왜 칼빈주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1.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에는 구원의 방도에 문제가 있다.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즉 믿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아서 믿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존 파이퍼, 존 맥아더, 엘버트 몰러, 스프로울, 켈러, 로우슨 등 거의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뒤 비로소 믿게 된다고 가르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인데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구원 및 믿음과 관련된 모든 구절에서 “사람이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요3:16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예: 칼빈의 이중 예정

기독교 강요 21장(생명의 말씀사, 499쪽) 제목, 영원한 선택: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하셨다.

위키 백과에는 예정에 대해 이런 글이 나온다.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시나리오에 이미 적혀 있고 인간은 그 시나리오대로 살고 있다.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507쪽),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

(*)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보통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 저주받아 지옥에 갈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24장 17항, 선택과 유기, 유기는 지옥에다 버리는 것 웨슬리의 말: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더 나아가 성경, 교회, 설교, 전도 및 선교 등 불필요

과연 하나님은 수십 억의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들은 믿으려고 애써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것은 심오한 시스템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어야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구원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심오해서 수십 시간을 공부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만다.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이 다 헛말이 되고 만다.

행16 빌립보 감옥의 간수, 30,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속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 헌트의 책 제목, <이것이 무슨 사랑인가?> 칼빈주의는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벵후3: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 헌트의 글

존 맥아더 스테디 바이블, 새 제네바 바이블(스프로울), 개혁주의 진리를 선포한다. 이들의 주장

1. 제임스 케네디, 나는 장로교인이다. 왜? 장로교 신앙 즉 개혁주의가 칼빈주의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 존 파이퍼, 5대강령의 은혜 교리는 오랫동안 성도들이 간직해 온 성경적 복음의 씨실과 날실이다.

3. 레나드 코프스, 개혁신학의 칼빈주의는 가장 명백하고 순수하게 표현된 성경적 기독교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칼빈주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덜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등한 신자이다.

4. 존 거스너, 칼빈주의는 기독교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칼빈주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웨슬리, 무디, 존 뉴턴, 존 번연, 빌리 그래함, 팀 라헤이 등 유명한 사람들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칼빈주의자들의 교회 분열 문제가 심해지자 결국 미국 남침례교회는 2012년 가을 호와 2013년 봄 호에서 자기들의 신학 저널의 전체 면을 할애하여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한 진술문을 실었습니다. (*) 1부는 85쪽이고 2부는 91쪽이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구원받는 방법 등 성경을 토대로 교리를 설명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이런 진술문을 내게 된 이유 설명: 소수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침례교회 내분에 분열이 생긴다. 우리는 그들의 칼빈주의 믿음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교단 차원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나의 강해 이유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목사로서 대다수 침례교인들, 성경 신자들이 성경대로 믿어온 것,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믿고 가르쳐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에 따라 목사는 자기가 맡은 양들을 올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다. (행20:28-31)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28-31).

물론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 믿는 바를 가르치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이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만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런 교리로 인해 실족하는 지체들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교회 채널에 올리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성경 신자들의 공통 견해

오늘부터 내가 전하는 것들은 나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다.

나는 직업이 연구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중 유명한 저자, 유명한 책,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만을 엄선하여 내가 소화한 뒤 가능하면 그대로 전달할 것이다.

1.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침례교 믿음 진술문
2. (*) Dave Hunt(1926-2013), 저자, 변증학자, 창조, 베레안콜, 천주교, 몰몬교, 뉴에이지, 칼빈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 책들 저술 30여 권, 거의 다 베스트셀러
What Love is this, Calvinism's Misrepresentation of God, 560쪽
갈보리채플의 척 스미스, 팀 라헤이(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가장 중요한 책)
리버티 대학 엘머 타운즈
3. (*) Norman Geisler(1932-2019), 전 세계 최고의 변증학자, 대학교수, 10년간 델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역임, 위키 백과 약 90여 권의 책, 조직신학(1600쪽), 로마 카톨릭 주의, 이단들, 비교 종교, 철학, 칼빈주의
Chosen But Free, 285쪽
4. (*) Way of life, David Cloud, 네팔 선교사, 성경적인 근본주의 자료는 여기에서 거의 다 찾아볼 수 있다.
(*) 상단 메뉴 중간에는 Free eBooks, 누구나 알아야 할 것들 94개 무료로 준다(음악, 오순절주의, 현대 역본들 문제. 진화론, 뉴에이지 등)
그중 한 개가 [Calvinism debate](#) 184쪽, 무엇이 문제인지, 칼빈주의를 만들기 위해 성경이 어떻게 왜곡되는지 등이 잘 분석되어 있다.
5. (*) Middletown Bible Church, www.middletownbiblechurch.org
성경 공부 자료가 가장 잘 풍부하고 조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사이트
왼쪽에 16개 메뉴, 그 중 한 개가 Reformed theology, 이 안에 약 70여개의 분석 기사
6. (*) 천하무적 아르벵주의(포이에마, 신광은 목사), 512쪽
교회의 윤리적 실패,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 자기에게 편리한 것들만 취해 천하무적 교리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분석함. 그러나 대안은 빈약함, 뉴스앤조이와의 관계, 조금 조심해야 한다.
7.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로마서 9-11장을 설명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James Knox의 칼빈주의 분석과 로마서 강해 등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8. 그리고 여러 종류의 교회사 책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는지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하나님, 구원, 예정과 선택, 예지, 교회사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성도들이 듣고 성경과 비교하고 판단하면 된다.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좋은 점〉

오늘은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 미들타운바이블처치 젤러의 분석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은 미들타운 성경 교회 Reformed theology, 섹션 The Dangers of Reformed theology의 1장에 들어 있다. 〈개혁신학의 위험 요소들〉

성경 살전5: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개혁신학 칼빈주의를 살펴보고 한다. 공정하게 그들이 믿는 바를 제시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어라고 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분석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대개의 경우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1. 이들은 66권의 성경을 교리와 실행의 유일한 근거로 믿는다.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사66:2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이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믿음에 의한 칭의(행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제사장 직분, 성경의 유일무이한 권위 등에 대해 올바르게 말한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카톨릭 암흑시대에 이런 진리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종교개혁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3.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높인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알고 개혁자들은 가장 추악한 죄인에게 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개혁자들과 함께, 공홀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해야만 한다.
4. 이들은 사람의 부패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권을 강조하므로 개혁주의 신앙 혹은 전통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 팽배한 사람 중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한다. 한 마디로 개혁주의 신학은 죄인인 사람은 낮추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높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롬11:36처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므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5. 개혁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를 심히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윤리(나태 동성에 등)에 대한 존중심이 있고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에 대한 존중심이 크다. 벰전1:15-16,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나하라, 하였느니라.
6.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매튜 헨리,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파이퍼, 맥아더, 그루뎀, 스프로울 등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였고 그분들의 주석이나 설교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대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볼 것을 가르쳤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7. 특별히 현시대에는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널리 퍼뜨리는 공격적인 방식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는 그리 교세가 크지 않다. 즉 교회가 많지 않다. 그런데 파이퍼, 몰러, 스프로울, 맥아더, 켈러 등은 교회들이 아니라 주로 책들을 통해, 자료들을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널리 확산해 왔다. 신학이 옳든 그르든 이렇게 책과 문서를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널리 전파하는 능력, 열심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우리의 자세

우리는 칼빈주의가 핵심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 일곱 가지 좋은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문제점(우리 눈으로 볼 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켈러의 말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 여김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금부터 2-3달에 걸쳐 우리가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범위

칼빈주의라 함은 칼빈의 모든 신학 체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루지 않는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칼빈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하나님의 예정, 주권, 속성, 사람의 자유 의지, 사람의 책임, 믿음,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피의 효력, 구원의 안전 보장 등 주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만 다룰 것이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보통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알려져 있다.

(*) TULIP: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대강령을 다 믿는 사람들은 보통 극단적 칼빈주의자(Hyper Calvinist)라고 한다. 이중에서 3, 4개만 믿는 분들도 있다. 온건한, 합리적 칼빈주의자(Moderate Calvinist) 지금부터 우리의 논의의 핵심은 5대 강령이다. 따라서 앞으로 칼빈주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문제는 무엇인가? 균형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약점: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균형이 부족하다.

특히 어떤 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로 얽어매는 데서

어떤 구절을 읽고 해석할 때 문맥에 따라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여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려준 신학 체계를 그 구절 안으로 밀어 넣어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평생토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칼빈주의 5대강령은 사람들이 만든 신학 체계이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강령 즉 사람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강령에 붙들려 그들의 주장을 따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거의 자동으로 나머지 4개를 따를 수밖에 없다.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다. 첫 번째 것을 믿으면 백발백중 나머지를 다 믿게 된다.

왜? 하나라도 깨지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예들을 보게 될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내 말을 믿지 말고 그 말이 성경과 비교해 맞으면 성경을 믿기 바랍니다.

칼빈주의 논쟁은 지난 450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으므로 저의 설명이 이 문제에 중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기에 그것을 감당하려 할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결코 논쟁하려 함도 아닙니다. 누구나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믿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를 위한 일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고후13:8).

시119:130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성경대로 믿는 단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침례 성도, 성경 신자의 특성이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2권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가이슬러) 1부

벵전3:13-15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변증은 영어로 apologetics,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변론 즉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확실함을 증명하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창조, 구원, 속죄 등 모든 주제 변증 필요 사도 베드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다.

13-15절: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가장 큰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교회 내외부에서 칼빈주의 문제가 대두됨, 어쩔 수 없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가르쳐야 할 필요,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시리즈 시작,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강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금요일에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왜 이런 주제의 강해 시리즈를 할 수밖에 없는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좋은 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다.

금요일 첫 번째 강해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나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저자들이 쓴 책과 기사를 인용하여 진행할 것이다. 나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오늘 (*) 노만 가이슬러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12년 전 쯤 강연, 누군가가 2년 전에 다시 올림, 가장 안전하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노만 가이슬러의 동영상 강연을 그대로 번역해서 전달할 것이다. 원래는 1시간 9분, 영어는 양이 많고 또 빨리 말하기 때문에 오전에 1부(5대강령 2개), 오후에 2부(5대강령 3개)를 하려고 한다. 원본 영상의 링크를 올릴 테니 영어를 하는 사람은 보기 바란다. 이를 통해 변증이 어떤 것인가도 배우게 될 것이다.

노만 가이슬러

(*) Norman Geisler(1932-2019) 자타가 공인하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 신학대학교수, 10년간 델러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역임, 위키 백과 약 90여 권의 책, 조직신학(1,600쪽), 로마 카톨릭 주의 문제, 이단들, 비교 종교, 철학, 창조와 진화, 칼빈주의, 성경의 영감 등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책들을 저술함, 보통 1권이 4-500쪽, 칼빈주의 관련: Chosen But Free, 285쪽

유머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감. (*) 2개의 줄에 사람들이 서 있다.

1. 오른쪽,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자들

2. 왼쪽, 자유 의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본인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람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신봉자, 그래서 예정된 자들의 줄로 감, 앞으로 나감

천사가 물음, 왜 이 줄에 섰느냐?

그의 대답: 제가 보니 이 줄이 맞는 것 같이 여기를 선택해서(원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천사의 대답: 그러면 이 줄에 오면 안 된다. 저 줄로 가라. 그 줄은 네가 원해서 가는 줄이다.

그래서 그 줄로 감, 다시 앞으로 나감

천사가 물음, 왜 이 줄에 섰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그의 대답: 저 줄의 앞에 있는 천사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것은 유머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무조건적인 예정 즉 사람의 자유 의지와 상관없이 예정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이 있다 즉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지난 450년 정도 성도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왜 이 강연을 하는가?

주후 1500년경,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들 지적 이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종교 개혁, 여기서 나온 것: 5가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차이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프로테스탄트(침례교 포함) 내부의 문제: 칼빈주의자들과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문제

나는 양측에 속한 모든 분들을 존중한다.

모두가 경건한 분들,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믿는 분들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오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대신 속죄, 몸의 부활, 재림, 물론 두 부류 모두 위에서 말한 5가지 솔라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 즉 칼빈주의 5대 강령 문제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

왜? 오늘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 특히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들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교리를 믿지 않는 편에 서서 왜 내가 그것들을 믿지 않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칼빈주의 5대강령

(*) 아름다운 꽃 튜립,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꽃 튜립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네덜란드에서 나온 것이다. TULIP

(*) 칼빈주의 5대 강령은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T(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

U(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P(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견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던 일을 꾸준히 지속한다. 은혜 안에 꾸준히 머문다.

오늘은 TULIP의 5글자로 표현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바와 내가 믿는 바를 대조해서 설명하려 한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자들은 보통 극단적 칼빈주의(Hyper Calvinism) 혹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불린다. 이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자들을 뜻한다.

이제부터 나는 먼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5대 강령의 정의를 말하고 성경 구절들을 제시한 뒤 성경에 근거해서 왜 내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1. T(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

먼저 엡2:1을 읽도록 하겠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전적인 타락(Total depravity)을 설명한다. 2:1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죄성이 넘쳐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무능력

1-5절을 계속해서 읽겠다.

1-2절: 1.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2.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3-5절: 3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욕심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1.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은 물속에 등등 떠다니는 시체,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시체 그런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죽어 있는 시체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다.

이들은 이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즉 중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비로소 시체로 지내던 사람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즉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 존 파이퍼, 맥아더 등

그들의 주장 요약: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도 결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

이들이 사용하는 지지 구절

고전2:14,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엡2:1-5와 고전2:14가 칼빈주의자들의 첫 번째 강령 즉 전적인 타락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전적인 타락 다시 요약: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다. 그 뒤에야 살아나게 된 사람은 비로소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강령을 다시 풀어 쓰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다.

- a.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다.
- b.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 된다.
- c.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인 타락의 핵심이다.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믿는 것이다.

2, 가이슬러의 반박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자들의 전적인 타락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려 한다.

에베소서 2장의 문맥을 보라. 1-5절 그 뒤에 나오는 8절을 보자.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면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 믿음인가, 구원인가?

다시 8절을 보기 바란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논리적으로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가? 당연히 믿음이다. 구원이 아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거듭나는 일) 중생 즉 구원이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롬5:1을 보도록 하자.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여기서 칭의는 당연히 구원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칭의를 얻는다.

먼저 칭의를 얻은 뒤(구원을 받은 뒤, 다시 태어난 뒤) 이것을 통해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나는 철학을 가르친다.

근대 철학자들 가운데 데카르트가 있다(1596.3.31. ~ 1650.2.11.).

그의 주장: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포인트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말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틀린 말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가 맞는 말이다.

따라서 칼빈주의자들의 말은 데카르트의 말과 비슷하다. 무언가 그럴듯한 데 실제로는 순서가 틀렸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먼저 구원받아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30-31을 보자.

30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 간수여, 너는 죄 가운데서 죽은 시체라 믿을 수가 없으니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야 한다. 그 뒤에 믿을 수 있다.”

다시 말한다: “그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였다.

구원과 관련된 신약성경의 모든 구절을 찾아보라.

항상 순서는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되어 있다.

요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죽어 있는 자를 살려놓으면 그 뒤에야 비로소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다.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항상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설명한 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사람을 살려놓아야만 그가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전도 차체가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3. 죽었다는 말의 의미

자, 이제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는 말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엡2:1, 믿지 않는 자들은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어 있다. 맞는 말이다.

죽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전멸되었다. 소멸되었다. annihilation

2. 분리되었다. separation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가? 특히 여기 엡2장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멸이나 소멸이 아니라 분리이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다.

대언자 이사야 59:2

(*)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의 벽을 가져온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순간 그의 영과 혼은 육에서 분리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고후5:8,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죽은 것)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빌1:23, 이는 떠나서(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창35:18, (*) 라엘이 죽는 장면,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죽으려 할 때에)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항상 분리를 뜻한다.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죽음을 영적인 소멸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죄들로 인해 죽으면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등등 떠다니는 시체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시체를 살려놓아야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4. 하나님의 형상 문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창9:6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창9: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게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창1:27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27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후에 사람은 죄를 지어 타락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왜, 창9:6은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창9:6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3:9도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혀)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그러므로 불신자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안 된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5. 타락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타락한 죄인들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죽은 시체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점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사건을 다시 살펴보자.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성경에 따라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었다. 그 결과 그들은 죽게 되었다.

창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의 죽음이 바로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즉 엡2:1의 죽음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3장을 보자.

3장 9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매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들은 듣고 판단한 뒤 그것을 수용하든지 거부할 수 있다.
롬1:19가 무어라고 말하는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의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롬1:18을 보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8절: 이들은 죄인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자기들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다. 억누른다.

(롬1:20)을 보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0절: 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안다. 창조 세상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성경이, 사람이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 알려주시는 진리를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 지은 뒤 죄들 가운데 있던 아담도 분명히 이해하지 않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전멸이 아니라 분리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멸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상하게 되어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전2:14를 자세히 보기 바란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즉 구원받지 않는 자들 즉 본성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단번 속죄 등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무능력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한 결과 그는 영원토록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성명이 말하는 팩트이다.

이런 지옥 정죄를 피하려면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여야만 한다.

죄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인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이유이다.

요약: 사람은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 사람은 죄들로 인해 죽어 있는 시체와 같다. 그들을 복음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살려놓아야 즉 그를 구원해야만 비로소 그 뒤에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경의 죽음은 전적인 소멸이나 박멸을 말하지 않고 분리를 말한다. 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 결과 정죄를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명백한 결론이다.

2. 무조건적인 선택(U unconditional election)

이제 나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두 번째 것을 믿지 않는지 이야기하겠다.

이것은 TULIP,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즉 선택의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엡1장 3-6절을 보자.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일단 여기에는 성도들의 선택(4절 택하셨다)과 예정(5절)이라는 말이 분명히 여기 나온다.

분명히 성경의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고 또한 예정을 가르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의 예정 선택과 성경의 예정 선택은 큰 차이를 보인다.

1.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즉 선택하시는 데 조건이 없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도 전혀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2. 성경적 관점 혹은 조금 온건한 칼빈주의적 관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즉 선택하시는 데 조건이 없다. 즉 구원은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진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믿음이다.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겠다.

1. 칼빈주의자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이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는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즉 이들이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강제로 믿게 하신다. 즉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이고 사람 편에서도 무조건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자동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2,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도록 하겠다. 29는 28절의 유명한 구절 다음에 나온다.

(*)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을 보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 그리고 그들을 예정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벵전1:2를 보도록 하자

벵전1:2,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적인 관점은 선택과 예정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아심에 따라 즉 복음이 전달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것을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선택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내가 1억 원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 치자. 이것은 나의 선함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한다든지 하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구원(영생)을 무료로 주신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주려는 선물 즉 1억 원을 받아야만 한다. 즉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손을 내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그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네 것이 된다. 네가 믿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또 실제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이므로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셔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하며(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며)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원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믿는 것은 우리의 몫(책임)이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요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지 않는다. 반면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롬6:23을 보자.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구절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선물은 내가 받아야만 선물이 된다.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주려고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선물이 결코 선물이 되지 않는다.

요1:10-13을 보자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이 나온다.

13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혹은

의지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 즉 그것을 받아들여려는 의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12절을 보라.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엡2:8을 보도록 하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의 오류이다.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을 둘러댄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면 결국 내가 구원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행위이다.

이것은 사실 어느 면에서 궤변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1억 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

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이 일에 일조하였는가?

나는 단순히 선물을 준다는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선물 1억 원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는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의
은혜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1억 원이라는 큰 선물을 준 그 사람을 100% 칭찬하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나?

“선물을 받아들였으니 너는 참 큰일을 했다. 일조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다.

이런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 그를 구해 준다. 그 사람은 로프를
밧으로 내렸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그 로프를 붙잡았고 로프를 내린 사람이 모든 힘을 다해 구덩이에서
그를 끄집어 내어 그 사람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와 살아났다. 이런 구조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기여한
것이 있는가?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구조에 일조했습니다.” 그가 손을
내민 것이 그의 구조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단독설과 협력설이라는 주제를 꺼낸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라도 만들어야만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된다. 단독설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면 협력설이 되고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것이 행위이니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한다. 롬4:2-5를 보라.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첫째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측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 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는다.

결론

오늘 우리는 벵전3:13-15,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누가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온유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구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이것들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한다.
교회 내외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구원과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를 묻기에 오늘 일부를
대답하였다. 믿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
딤후3:14-15, 그러나 너는 네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15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기록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성경기록대로 믿고 배우고 소망의 이유에 대해 변증할 수 있는 성경 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㉓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가이슬러) 2부

벧전3:13-15

오늘 우리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변증은 우리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써 확실함을 증명하는 것

이 일을 위해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유가 되고 있는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시리즈 시작, 금요일에는 왜 이런 것을 하는가? 개혁신학 칼빈주의의 좋은 점과 문제점, 오늘 오전에는 20-21세기 최고의 크리스천 변증학자 노만 가이슬러의 영상 전달, 나는 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 칼빈주의 5대 강령은 TULIP의 5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T(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혹은 부패

U(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속죄

I(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혹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

P(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오늘 오전에는 5대 강령의 1과 2,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살펴보았다. 오후에도 같은 제목으로, 3-5 강령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한다. 변증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3.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이제 나는 칼빈주의자들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 것 즉 제한 속죄 교리의 오류에 대해 말하려 한다.

제한 속죄 정의: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속죄 값을 치르셨다.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를 지지한다.

나는 제한 속죄 교리를 믿는 분들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부른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와 다르게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같은 말을 우리와 달리 읽는다.

즉 세상이나 모든 사람 등의 말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세상이나 모든 사람으로 읽지 않고 '세상의 일'부나 '일부 사람들' 혹은 '세상의 모든 부류 사람들' 등으로 읽는다.

예를 들어 요3:16을 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믿어야 한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서 세상을 그냥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해석한다.

즉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자들의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본문에다 집어넣는 것이다. (*) 영어로 '아이서지시스'(eisegesis)라고 한다.

자기 해석 혹은 자기의 사상을 본문에 개입시킨 해석

반면에 내 생각을 접어 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어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을 '엑서지시스'(exegesis)라고 한다. 이것은 '의미를 밝히는 것'이란 뜻인 헬라어 '엑세게시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성경 본문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이서지시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독자의 신학(자기 생각 혹은 배운 것)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절대로 알 수 없게 된다.

요3:16-18을 보기 바란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 ¶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제 롬5:6을 보도록 하겠다.

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6절을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제 고후5:14-15를 보겠습니다.

14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몇몇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죽었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대로 모든 사람으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컬러 안경을 쓰고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딤후2:4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해석의 황금률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몇몇 사람은 몇몇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든 그리스말이든 한국말이든 모든 사람을 말하지 결코 몇몇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을 보기 바랍니다.

딤후2:6,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벤허3:9를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벤허3: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던 것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동시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오직 선택받은 자들인가요? 아니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가요?

그러데 이상하게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은 여기의 세상이 온 세상이 아니라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요일2: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세상은 결코 크리스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이것을 크리스천 세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꼴이 되니까요?

16절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기의 세상은 결코 구원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전체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의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성경 전체, 아니 전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시고 그들만을 위해 속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은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의 속성이 그분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우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지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어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모두를 사랑하셔야지 일부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속성상 그분은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저와 극단적 칼빈주의자를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뒤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칼빈주의자는 전통적인 극단적 칼빈주의를 주장하였고 저는 성경에 따라 온건한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제한 속죄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요한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말하였습니다. “요한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 즉 선택받은 자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분으로,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일을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신 즉 알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신인 알라는 너무나 주권이 강하여 자기가 원하면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는 자신이 원하면 몇몇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에 위배되게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미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만 그분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에게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의 소년들은 거기서 수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영하다가 익사하면 안 되므로 농부는 거기에 펜스를 두르고 (*) 접근 금지, 수영 금지 팻말을 크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동네 소년들이 거기 와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트랙터를 멈춘 뒤 팔을 접었다가 그 팻말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애들아, 이 팻말에 무어라고 적혀 있냐? 접근 금지,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위반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으니 빠져 죽어도 싸다.” 그러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세 소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있다면 과연 이 농부는 사랑이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전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하나님과 이것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접근 금지, 선악과 먹는 것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법을 어겼으므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을 어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절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법을 주었는데도 그들이 이 죄를 지었으니 그들을 무조건 지옥에 넣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농부처럼 아이들이 빠져 죽는 것을 기쁜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과 성경이 하나님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

지금 세 명의 아이들이 죄를 지어 빠져 죽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은 이 세 아이들 가운데 하나에게만 구명 로프를 던집니다. 그리고 로프를 당겨서 그 아이를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가 빠져 죽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성경의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도덕적 윤리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분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는 저의 모든 사랑을 그분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단지 일부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구조하려 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세 아이들처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였습니다. 지금 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물에 빠진 세 소년 모두에게 구명 로프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들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명 중 하나는 그 구명 로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명은 그것을 거부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에 대해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명 로프를 던지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자기가 던지는 구명 로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눌러서 무조건 로프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강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 저항할 수 없는 은혜(Irresistible grace)

이 시점에서 저는 칼빈주의의 4번째 강령인 I(Irresistible grace)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권능이 크시므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그 결과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주장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무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1.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저항할 수 있는 보기 위하여 마2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논박하십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보내며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 하셨지만, 즉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 주고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원치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사 그들 모두의 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구원의 초청을 하셨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는 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애를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녀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하며 좋아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한다. 선물을 주고 꽃을 보낸다. “결혼해 주십시오.”

처녀의 말: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실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므로 강제로서 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며 결혼을 해 달라고 하고 강제로서 그녀의 몸을 취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면서 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이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하나님이 강제로서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성경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위대한 분리>(Great divorc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맨 마지막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남게 된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택하였다. 사람이 선택할 수 없다면 지옥은 존재할 수 없다.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찾는 자들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고 강요할 수도 없다. 상대의 뜻을 존중할 뿐이다.

밀턴의 실낙원에는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심오한 말이 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대답: “네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소원을 막지 않으신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배치된다.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하고 저항할 수 있음이 명확히 나와 있다.

여기에는 스테반의 설교가 나온다.

스테반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5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성령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그분의 은혜에 저항하였습니다.

정확하게 resist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즉 그분은 우리의 목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9장 13절이다.

13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13, 20, 22-23절은 아주 강한 말씀들이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중에 몇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9-11장을 다시 한 번 설명할 것이다. 일단 오늘은 가이슬러의 설명을 듣자.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의 하나님처럼 보인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분처럼 보인다.

관주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의 관주를 보기 바란다. 이 구절은 말라기 1장 2-3절에서 인용되었다.

2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과 에서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말라기서는 그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에서라는 어떤 개인 한 사람을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내용이 아니다.

지금 주님은 야곱이라는 국가 즉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 두 국가가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특별히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 특별히 그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일들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한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국가를 미워하신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으므로

즉 이 구절은 첫째로 개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이 아니다.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날 일 즉 구원에 대해 말씀하지 않는다.

3-4절을 보자.

3 내가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을 위해 주었느니라.

4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격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즉 이것은 (1) 개인의 예정에 대한 것도 아니고 (2)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시고, 에돔이라는 국가는 몇 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땅에서 멸망시키겠다는 말이다.

더욱이 여기의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말씀

눅14:26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 여기의 미워하다는 무슨 말인가?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다. 덜 사랑한다는 말이다.

즉 예수님을 부모보다 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혹은 히브리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창29장을 보기 바란다.

(*)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미움 받는 것의 의미를 보자.

30절: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칠 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그러므로 레아가 미움받았다는 말은 라헬보다 덜 사랑 받았다는 뜻이지 우리 보통 생각하는 미워한 것 즉 혐오한 것이 아니다.

개역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라고 이상하게 번역하여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였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지난 몇 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사악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가 아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다.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로마서 9장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에서의 국가는 덜 사랑받는다는 뜻이다. 개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모든 개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여기 로마서 9장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22절을 보자.

22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23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자,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가?

하나님의 예정 때문인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이다.

22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고 말한다.

즉 그분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벧후3:9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들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진노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였고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 15절의 파라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다.

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흠을 베풀 자에게 공흠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일으키시고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주장한다.

다시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기 바란다. 신약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이 인용된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기 바란다.

출애굽기의 파라오 부분을 보겠다.

(*) 여기에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데도 있고(4:21; 7:3; 7:13; 9:12 파라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데도 있다(7:14,22; 8:15, 19, 32, 9:7, 9:34).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이 4:21에 가장 먼저 나오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제로 강박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른 강박하게 하심이 나온다.

3:19를 보기 바란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강박하게 하신다.

사실 하나님은 파라오가 재앙들을 통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궁극적인 파멸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긴다.

우리가 파라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든다.

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것이다.

동일한 해가 있다. 그 해가 빛을 내면 초는 녹이고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 스피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동일한 태양이다. 그런데 그 햇빛을 받아들이는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햇빛 자체의 부드럽게 하는 빛들이 다른 작용을 한다.

초처럼 그 빛들을 수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여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진흙처럼 더 딱딱하게 만들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그 동일한 사랑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냅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 사랑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녹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처럼 더 딱딱해집니다.

5.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제 마지막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5번째 항목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끝까지 지속할 것이며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선택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라면 그는 결국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성경적 복음에 따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로 생각하면 이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교리(Eternal security)라고 확고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구약의 율법)에 신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분의 법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이것은 곧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구원에 관한 한 모두 다 안전하지만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분의 법(율법)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명의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된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주말에는 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다수는 아직도 우리가 구약 시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롬6: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갈5:18,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고후 3장을 보면 구약 시대 율법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 생애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비행기를 탔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안식일)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게 되면 이것은 곧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님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매일 일어납니다. 그들도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즉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어라고 말합니까?

딤후1:12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 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빌1: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요10: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롬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롬8:15,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맥아더가 주장하는 로드십 설배이션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것이다.

청교도들 가운데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중 여러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신실했는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복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딤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1:12 때문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결론

오늘 저는 왜 내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즉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을 믿지 않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왜 내가 성경을 믿는지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죽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즉 진실하게 5대 강령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자신도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만나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어라고 하십니까? 마23: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나이가 가라 폭포의 물과 같이 엄청난 규모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마음의 컵을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마음의 컵을 똑바로 들어서 그 사랑의 물을 가득 담되 홀리넘치도록 가득 담고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컵을 거꾸로 들고서 사랑의 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음을 열고 그 컵을 바로 세워서 나이가가라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칼빈주의 바로 알기 4

루터와 칼빈의 흑역사: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살전5:21-22

우리는 지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지난 3시간, 첫째 시간: 왜 강해를 하는가? 칼빈주의의 문제, 구원 문제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믿는다.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노만 가이슬러, 5대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왜 성경과 다른가?

기독교 강요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507쪽),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

(*)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칼빈주의는 한 마디로 사람에게서 자유 의지를 제거하는 시스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은 < > 먼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칼빈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은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를 믿으며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약 12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성경과 교리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못했다. 카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 행위 구원
이러던 시대에 루터, 칼빈, 쾰링거 등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5가지 솔라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신칭의, 5가지 솔라 때문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왜? 성경과 비교할 때 종교개혁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교리적 오류가 있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론이 완전히 망가졌다. 유아 세례, 주의 만찬, 교회의 두 직분, 재림 등
말 그대로 이신칭의 빼고는 거의 모든 교리가 그들의 가르침 안에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

심지어 칼빈의 경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의 믿음도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을 시킨 이후에 성도가
무조건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니 더더욱 성경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미들타운바이블처치 젤러(*)

Reformed theology, 5번째 기사, (*) Should We Go Back to the Reformation?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답은 '아니요!'이다. 절대로 '아니요!'이다.

이 기사에는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흑역사가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흑역사: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오늘은 기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코멘트를 할 것이다.

젤러의 글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R.C.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The Reformation Study Bible, 1998)을 보자. (*) 이전에는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한글 판(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나중에 1시간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에 대해서도 젤러의 글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다.

middletownbiblechurch.org/reformed/geneva.htm

종교개혁(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도입부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 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시119:130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여러 면에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자유가 없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 한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더욱이 450년 전의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행17:11-12

바울의 말 (고전11:1).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므로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왜? 그런 부분들에서 개혁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루터와 칼빈이라는 두 종교 개혁자의 삶을 살펴보고 한다.

이 두 사람은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 즉 이들의 흑역사를 살펴보고 한다. 목적: 무조건 종교 개혁자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루터의 반 유대인 주의

1517년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붙여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역사상 매우 위대한 사람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은 기독교의 역사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루터를 사용하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루터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는 모든 유대인을 적대시하고 심한 독설을 퍼부었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 (*)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총 8권 Volume 7 "Modern Christianity--The German Reformation," pages 61-62: 독일의 종교개혁 61-62쪽

“루터는 유대인들에 대한 불관용을 공개적인 의견으로 진전시킨 사람이다. 처음에 그는 1523년에 유대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1543년에는 유대인들을 극도로 대적하는 두 개의 폭력적인 책들을 지었다. 그는 유대인 랍비들과 토론을 한 뒤 이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는 그들을 기독교 국가(독일)의 영토에서 추방하고 그들의 책들(토라와 탈무드 등)을 금서로 정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라고 조언하였다. 유대인들은 공공의 원수이므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루터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는 이해하였지만 하나님이 베푸실 밝은 미래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9-11장을 이해하지 못함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예수님, 제자들 모두 유대인,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록자 유대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 등에 대해 무지함
당시의 유대인, 나라도 없고 떠돌아다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유대인들 핍박
시작은 천주교, Jesus Killer, 반셈족주의(Anti Semitism)

유대인들에 대해 이런 악행을 저지른 루터를 5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랍비 조셉 텔루슈킨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 "Martin Luther 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found in the book [Jewish Literacy--The Most Important Things to Know About the Jewish Religion], by Rabbi Joseph Telushkin, 1991년, 784쪽, 204-206

〈유대인들에 대한 교양 지식: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한 장: 마르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 책에서 랍비 조셉 텔루슈킨은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일을 자세히 보여 준다.

그는 루터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에 비교한다. 처음에 그는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나 유대인들이 개종을 거부하자 그들을 탄압함.

랍비 텔루슈킨의 말

1. 루터는 히틀러 시대 이전까지 독일에서 발간된 반 유대인주의 책들 중 가장 유대인들을 크게 대적하는 책을 지었다. (*) 1543년에 루터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On the Jews and their Lies

2. 기독교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중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유일한 한 하나님만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들의 목에서 그들의 혀를 잘라내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 루터는 예수님은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은 증오했다. 이상한 일

3. 수년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제2차 세계 대전이 1945년에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드디어 1946년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의 나치 전범들이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러 나왔을 때 독일 나치 장교로 선전 선동을 주동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율리우스 슈트라이허 (Julius Streicher)에게 재판관이 질문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러자 슈트라이허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죄가 없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그 일을 하였을 뿐이다. 만약 내게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먼저 재판하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은 루터가 그들에게 행한 일보다 나쁘지 않았다.”

4. 히틀러는 자랑스럽게 루터가 자기와 한 편이라고 말하였다. “루터는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을 보았다.” 즉 그들을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5. 루터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한 가장 큰 이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루터는 종교의 자유(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기가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심지어 죽여도 된다는 생각

이것이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한 종교 정신,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자유가 박탈된다.

요한 칼빈의 무자비한 학살

젤리의 글: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며 종교 개혁 실행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카톨릭 믿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극도로 핍박하였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Inquisition)을 연구해 본 사람은 누구라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이다.

위키백과 스페인 종교재판: 스페인 종교재판은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스페인 왕국에서 있었던 종교재

판이다.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31,912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다. 한편, 희생자의 수를 가장 크게 잡은 기록은 사형이나 고문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2백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유대인, 개신교인,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유대인: 억압을 피해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역사가 후안 데 마리아나는 8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였다.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대개 포르투갈이나 모로코로 옮겨갔고 후에 유럽,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각지의 도시로 흩어졌다.

아이러니: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거기서 나온 칼빈과 여러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나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8, "Protestant Intolerance," pages 700-800). 프로테스탄트들의 불관용

“개혁자들은 자기들의 어머니 교회(모교회) 즉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와 탄압이라는 불관용 교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을] 최대한 핍박하였다. 그들의 박해와 불관용은 카톨릭 교회와 비교해서 규모와 정도는 달랐지만 원리 면에서는 동일하였다. 이들은 교황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자기들 스스로 향유하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애나뱃티스트(재세레파, 재침레파) 등과 같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지역에서 추방하고 옥에 넣고 익사시키고 참수하고 목매어 죽이고 불태워 죽였다.”

현시대에는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종교개혁의 산물인 칼빈주의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보여 주기 위해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바오출판사 2009)에서 발췌할 것이다.

(*) <폭력에 대항한 양심-칼빈에 맞선 카스텔리오>이다.

이 책은 칼빈과 동시대에 제네바에 살면서, 신정국가를 건설한 칼빈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감동적인 싸움을 20세기 최고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인 츠바이크(나치의 탄압을 피해 망명지를 떠돌았던 위대한 전기 작가)가 기술한 것이다. 아무도 이 책이 보여 주는 역사적 사실에 토를 달지 못할 것이다. 눈으로 본 사람,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글

<기독교강요>에서 말하는 교회 목사,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45쪽 “교회의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고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행할 권한이 있고 이 세계의 위인이나 모든 권력자를 강요하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여 자기에게 봉사하도록 만들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령을 세울 수 있고, 사탄의 왕국을 쳐부술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양들을 보살피고 늑대를 절멸시켜야 하며, 복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반항하는 자들을 고소하고 절멸시킬 권한을 가진다. 그들은 결합할 수도 해제할 수도 있으며 번개와 천둥을 내리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은 뒤에 조건을 달았지만 그것은 명목상 단 것이고 실제로는 앞에 있는 대로 행하였다.

목사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일이 간섭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이 칼빈주의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칼빈은 두 번에 걸쳐서 제네바 통치, 1536-1538년 1차 통치, 실패하고 쫓겨남, 3년 뒤 다시 제네바로 감

칼빈의 2차 제네바 통치(1541-1564) 약 23년, 그는 제네바에 머물며 개신교의 교황으로서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시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제네바에서의 처음 실패를 경험한 뒤 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장로 통치 제도를 도입하고 엄격한 생활방식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칼빈은 국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한 종교 재판을 이용하였다. (두산 백과) 종교 재판은 이단 심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하는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은 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창시자는 어거스틴)... 이단 탄압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은 각국의 국왕, 영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속적인 재판으로도 행해졌다. 그 후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종교 재판이 성행되었는데 그 재판 방법은 카톨릭 측의 방법과 같았다.

칼빈은 신약 교회가 경험한 적이 없는 '교회 계율'을 도입하고 종교국을 만들어 제네바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이런 감독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제네바에서는 사생활의 자유가 사라졌다. 도덕 경찰관들은 어느 집이나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검사하였다. 하나님의 계율을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테러 속에서 제네바 시민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 - 연극, 오락, 민속 축제, 춤, 온간 형태의 유희, 심지어 스케이트 타는 것도 - 을 다 박탈당하였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살다가 죽는 것, 일하고 복종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이었다. 제네바에서는 오로지 "금지, 금지, 금지!" 그리고 "의무, 의무, 의무!"의 외침만 들렸다.

칼빈은 10,000여 명에 불과한 제네바시를 통치하며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자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종교개혁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빙자한 살상 행위였다. 이 같은 잔인한 피의 숙청은 칼빈의 잔인성과 폭력성이 어떠한지 여실히 증명해 주며 국가 교회 통치를 위한 칼빈주의 교리가 예수님의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어거스틴의 카톨릭 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멸망의 교리였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칼빈은 종교적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선적 지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반대당의 사람들까지도 거침없이 제거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문학자 카스텔리오는 "제네바에서는 칼빈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다 처형당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제네바에는 칼빈당 외에는 어떠한 당파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칼빈의 주장(53쪽):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이 사실이 나의 양심에 힘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은총을 내리셨다."(53쪽)

카스텔리오: 칼빈으로 인해 제네바에서 자유는 끝났다(46쪽)

칼빈이 처형시킨 사람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칼빈의 예정론 교리를 비난하고 반대한 사람들
2. 칼빈을 위선자라고 부른 사람들
3.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4. 부모를 구타한 사람, 5. 칼빈과 생각이 같지 않은 자유사상가
6.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
7. 이 외에도 그는 삼위일체, 유아세례, 성만찬 등의 해석에서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처형하였다.

칼빈과 그의 종교국의 고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엄지손가락을 조이고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것
2. 창자가 튀어 나오도록 꼬챙이로 쑤시는 것
3.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것, 4. 사람의 가죽을 벗긴 뒤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
5. 칼로 살갓을 찢는 것, 6. 불에 그슬리는 것, 7. 사람의 몸을 절단 내는 것
8.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 9. 해충들이 살을 뜯어 먹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 책,,이 모든 고문 방법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 잡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방법들이다. 이런 극심한 일들이 진행되자 고문받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자 종교국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박수를 치게 했다.

사실 그때까지 제네바 시는 칼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한 이런 폭정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프랑스의 작가 발자크(Honore de Balzac)는 칼빈의 프로테스탄트 종교 테러가 프랑스 혁명의 피의 축제보다 더 잔혹했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든 행위와 역사를 바로 규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인 정통으로 숭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주의는 실로 인본주의 철학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대개 지성주의자들이 거기에 매료된다. 그러다 보니 현시대 칼빈주의자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성경에 기반을 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킨 진리’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가르치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W. J. Seaton, The Five Points of Calvinism, 1970, p.8, J. B. Davis, The Berea Baptist Banner, 1995, p.30, M. Duncan, The Five Points of Christian Reconstruction from The Lips of Our Lord, 1990, p.10.

칼빈에게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자기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가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시며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사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신약 시대라는 새 시대를 여셨다. 예수님의 신약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무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며 무력으로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주후 100년 이후로 교회 이름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며 세상을 제압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행은 다 국가 교회를 시행하는 카톨릭 교회와 거기서 파생된 개신교회(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청교도 신앙/개혁주의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칼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사람들이 칼빈이라는 무서운 독재자의 사상을 성경 위에 두고 그대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천주교회의 통치보다 더 무섭고 엄격했던 칼빈의 제네바 철권통치의 실상이 성도들이 정확히 자세히 알아야만 한다. 다시는 그런 만행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독재는 실로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짓임을 역사는 잘 보여 준다.

결론

젤러: 개혁자들이 받은 빛은 다 성경에서 나왔다. 우리는 이신칭의, 성경의 충분성, 5 솔라 등 그들이 발견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다.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중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들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보여 준 대로 칼빈은 제네바에 국가 교회 즉 신정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교회에 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교리는 이보다 훨씬 뒤에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발견되었다. 개혁자들은 국가 교회, 신정 정치,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특히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회론, 구원론 등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들은 성경이 주는 빛으로 중세 암흑시대의 매우 미소한 부분에만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즉 물이 나오는 원천이 샘으로 돌아가야지 샘에서 나온 조그만 물줄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교리와 실행의 원천인 샘이다.

우리는 개혁자들, 교회사의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비교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왜 기독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의 시조는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가 시작되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세 암흑시대로 나가는 과정을 교회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5

칼빈주의 구원 교리 No! 성경의 구원 교리대로 믿어야 한다

딤후3:14-17

요즘 교회 내부에서 구원 교리로 인해 어려움이나 혼동을 겪는 분들이 있어 갑작스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 주의자도 아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주일에 쉬지 않고 놀러 다니지 않고 교회에 오는가, 다니는가,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하는가, 특별히 아이들을 예수님 믿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가? 결혼도 가능하면 신자와 하려 하는가? 왜 바쁜데도 성경을 읽는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으려고, 죄들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으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 훨씬 더 중요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올인했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다. 그리고 구원 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기록들을 주셨다.

딤후3:14-17을 보자. 13절

14절: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야 한다. 오늘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15절: 성경기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영원에 소망을 두게 하여) 심지어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기록들에 동의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하고 있다(메시아, 율법, 모세,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롬1:16)

16절: 17절

그러면 성경 기록들을 통해 특별히 어떤 지식을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다. Good News=Gospel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장 5항,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507쪽),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

(*)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중의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되므로 우리는 그를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보통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 저주받아 지옥에 갈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들은 어느 면에서 믿으려고 애써도 믿을 수 없도록 작정된 존재들이다.

과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성경에 위배된다.

(*) 딤후2: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야 복음이다.

겔18:23: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11

그런데 이런 교리 시스템을 만들고 추종하며 이것이 가장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존 파이퍼, 스프로울, 맥아더, 그루뎀, 켈러 등 소개하면서 늘 느끼는 문제
 나는 이분들을 다 구원받은 분들로 믿는다.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배울 것들이 많아 소개하지만 이들의 책을 읽다 보면 불쑥불쑥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섞여 나오므로
 목사로서는 혹시 성도들이 이런 데 빠질까 봐 두렵다. 또 이분들이 칼빈주의 교리를 지키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주의하라고 말한다.
 칼빈주의자들의 교회 분열 문제가 심해지자 결국 미국 남침례교회는 2012년 가을 호와 2013년 봄 호에서
 자기들의 신학 저널의 전체 면을 할애하여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한 진술문을
 실었습니다. (*) 1부는 85쪽이고 2부는 91쪽이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구원받는 방법 등 성경을 토대로 교리를
 설명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이것은 (*)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책으로도 나왔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 확실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목사로서 나는 오늘 <칼빈주의 구원 교리 No! 성경의
 구원 교리대로 믿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틀릴 수 있어도 구원 교리에서 틀리면 안 된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므로
나나 어떤 목사의 설교 믿음 진술문, 모두가 검증해야 한다. 행17의 베레아 사람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성경과 비교하였고 맞는 것을 확인한 뒤 믿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 사람의 타락과 책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방법, 성화 등 여러 요소

1. 사람의 타락과 책임

우리는 사람의 전적인 타락 부패를 믿는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부패한) 죄인이며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 의는 완전하게 올바른 것을
 뜻한다. 즉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다.

(*)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롬5:12).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 대해 로마서 3장 9-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읽자.
 엡2를 보자. 타락한 사람은 죄들과 범법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고(엡2:1)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며(엡2:3)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다(엡2:12).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렘17:9).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 가운데 놓여 있다.

그(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자기의 죄와 불신에 대해 결코 변명할 수 없다(롬1:18-20).
 그런데 사람은 타락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고전11:7) 선과 악을 구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넬료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도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행10:1-2). 설명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들은 할 수 없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심지어 그의 의 혹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사64:6).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이 처참한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사람은 인간이 지불하는 어떤 것이나 장치에 의해 결코 구속받을 수 없다(시
 49:7-9).

구원에 관한 한 깊은 구덩이 속에 갇혀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타락 혹은 부패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사람에게에는 자유 의지가 있어서 모든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 심지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도

모든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된다.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믿는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마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2.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선하게 뜻하신 계획에 따라 하신다((엡1:11; 시135:6; 사46:10-11; 단4:35).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게 뜻하신 계획에 따라 죄의 늪에 빠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딤후2:4-6).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요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 주권은 sovereignty이다. OED 최고의 통치 권세, 최고의 통치 위치, 누구에서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대다수 칼빈주의자들의 이해: 주권을 통제, 간섭, 단속, 감독으로 이해한다.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다(in control). 그러나 하나님은 위낙 권능이 크시므로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not controlling). 마6:1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사에 대한 모든 간섭이라면 이런 기도 불필요. 조금 있다가 설명한다.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이 심취한 스토아학파의 숙명론 근거: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의 어디로 떨어지는지, 수탉들이 싸울 때 목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책 [섭리]에 기록되어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러한 간섭을 주권으로 착각함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의미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수십만 명의 사원들이 있고 하청 업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삼성 이회장 부회장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그 많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할까? 아니다.(*).

자신이 이끌고 나갈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비전을 제시하지만 (*)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지침에 따라 자유롭게 일한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진다.

아침 8시, 9시 출근, 오만가지 이득,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의미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모든 것을 자신이 기뻐하는 뜻과 계획에 따라 이끌고 가신다. 그러나 그 일에 사람이든 천사든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하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즉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까지. 무엇을 먹을지... No!

하나님과 사람이 장기를 둔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은 0%, 자유롭게 두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100% 이긴다. 그래서 마귀도 사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램해서 자기 뜻대로 되게 만든다고 가르친다.

즉 장기를 둘 때 사람은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대로 둔다. (*)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것이다. 아담의 타락, 마귀의 타락, 천국, 지옥 선택, 하나님이 미리 프로그램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할 일을 모두 아시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모두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책임을 묻는 분이다. 누가 더 강한 존재인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 혹은 모두

프로그램 하는 분, 당연하지 않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3. 예수님과 구원과 믿음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요14:6,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셨다. (*)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요일2:2).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다.

(*)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이루어지며 이 일에 사람의 행위가 기여하는 바는 0%이다(롬11:6; 딤후1:9; 뱀전1:18-21).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100% 사람이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믿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롬3:25, 30-31; 갈3:8, 14; 엡2:8; 3:15; 히6:12).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보여 준다(롬9:32; 갈2:16; 3:2). 구원이 행위의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믿음의 법에 의해 이루어지면 자랑할 것이 없다.

(*) 3:23-24, 27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27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롬4:2-5 설명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다. 선물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므로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 없다. 모든 영광과 찬양은 선물을 주는 존재에게 돌아간다.

4.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신다(요6:44).

(*)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찾지 못한다.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확증하거나 스스로에게 빛을 주거나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즉 죄인들은 자기 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죄인들은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끄시는가?

다음 절 6:45를 보라. 대언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이끄는 것이다. 44절의 '이끌다' 앞에 '강제로'나 '저항할 수 없게'를 붙이면 안 된다. 즉 예정된 자들로 만들면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셨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요12:32). 모두 구원 아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는 복음 선포자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며 죄인들이 유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쳐 주신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에 반응하고 성령님의 확증 사역에 동의하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즉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 이로써 사람은 구속을 받고(엡1:7) 죄들의 용서를 받으며(엡1:7) 다시 태어나고(딤후3:5)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며(엡2:1)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골1:13). 즉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

(*)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느니라 (요1:12-13).

이 구절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믿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는다. 죄인은 결코 자신의 뜻에 의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오직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다시 태어나게 하며 구원하신다.

5.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복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일5:11-13)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골1:13)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받고 있다(엡1:3-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엡2:5-7). 성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3:3).

6.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

구원은 회심한 삶에 의해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나(요일2:4)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요10:27). 하나님의 저저 주시는 은혜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엡2:10).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제하려 하심이니라(엡2:10).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구원과 성화(혹은 제자도)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징표로 지속적으로 모든 일에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열매인데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면 매아더 목사의 로드십(주재권) 구원이 되고 이것은 곧 행위 구원이다.

7.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또한 그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요10:28-30).

결론

우리의 구원 안전한가? 구원은 사람께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유지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분에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행16 빌립보 감옥의 간수, 30,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복과 안전 보장의 복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나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6
칼빈의 원조 어거스틴의 신정 정치/국가 교회 탄압
종교개혁자들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무력 탄압

골2:8

우리는 지금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지난번 강해는 종교 개혁자들의 만행의 흑역사,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다고 루터의 경우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책들(토라와 탈무드 등)을 금서로 정하고 회당을 불태우고 우리의 구원자를 모독하는 자들의 집을 불태우라고 하였다. 루터의 반유대주의는 결국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의 근거가 되었다, 칼빈의 경우 제네바에서 무력 통치를 하며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 5년 동안에 13명을 교수대에 매달고 10명의 목을 잘랐으며 35명을 화형시키고 76명을 추방하였다.

왜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일들을 자행하였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시대정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살던 시대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면 안 된다.

그 당시는 국가마다 국교가 있었다. 국민들은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회와 그 교회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것들을 믿을 자유가 없었다.

(*) 오토 베버의 책 <칼빈의 교회관>에 나와 있듯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6-17세기 유럽의 모든 국가에는 신정정치라는 통치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것은 4세기경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성되면서 존재한 '기독교 나라'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이 개념의 핵심은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 교회가 국가를 통치하거나 모든 국민들이 국가가 공인한 신앙만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정치적으로 이런 국가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라고 불리며 이런 교회는 국가 교회(State Church)라고 불린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바로 이런 국가 교회의 신정정치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재 국가의 통치 철학서이다. 즉 그 당시 칼빈과 개혁자들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신약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교회를 통해 구약의 신권통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시대에 편견 없이 신약성경을 읽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교회는 그와 같은 신정정치 국가체제가 아니며 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만든 이런 철학서를 우리는 이 자유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설물같이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성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 성경의 단순함을 버리고 교묘한 언변과 추론으로 가득한 칼빈의 <기독교강요> 같은 책에 성경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기에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교리의 부재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러면 칼빈의 신정 정치 국가 교회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누구인가? 즉 칼빈주의의 원조는 누구인가?

(*) 위키 백과로 들어가면 이에 대한 기사가 정확히 나와 있다: [Augustinian Calvinism 항목](https://en.wikipedia.org/wiki/Augustinian_Calvinism)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inian_Calvinism

소제목: 칼빈과 어거스틴의 TULIP

칼빈의 글: 나는 어거스틴과 전적으로 똑같다.

(*) 위키 백과: “어거스틴이 내 속에 전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쓰기 원한다면 나 자신이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완벽히 충실하게 그의 책들에서 자료를 얻어 쓸 수 있을 것이다.”

Augustine is so wholly(at one) within me, that if I wished to write a confession of my faith, I could do so with all fullness and satisfaction to myself out of his writings. (*) <Calvin's Calvinism, A Treatise on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987), Henry Cole.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p. 38.

위키백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자기를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어거스틴 주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따라서 기독교 칼빈주의자들은 어거스틴-칼빈주의자로 간주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 그 결과 칼빈주의는 특별히 어거스틴주의라 불려왔다.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어거스틴의 5대 강령

어거스틴은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 18년 동안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변형들을 가르쳤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숙명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옹호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을 가르쳤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하기 전에 10년 정도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다. 마니교에서는 신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원에 이를 자들을 선택하고(택자) 정죄받을 자들(비택자)을 선택한다.

(*) 어거스틴 이전의 교회 교부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는 예정은 이교도들의 교리라고 하면서 이를 반박하였다. 어거스틴 전에 50명의 초기 크리스천 저자들이 인간의 자유 의지와 숙명론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50명 전원은 100% 모두 스토아 철학, 영지주의, 마니교의 숙명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 의지를 지지하였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412년 이전에 무려 26년 동안 이러한 숙명론을 대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가르쳤다. (*) 그런데 그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틀어서 영지주의와 마니교의 관점을 따랐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입하지 않으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은혜는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되고 만다(즉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야 믿을 수 있다는 칼빈주의자들의 교리).

유아 세례와 관련이 있는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어거스틴이 자기의 신념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펠라기우스 추종자들과의 논쟁 때문이었다.

(*) 주후 200년경의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에 대해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 혹은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 세례를 반박하였다. 주후 400년까지도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추종자들은 유아 세례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가 영원한 정죄를 수반하는 아담의 원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가르침이다.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요소는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다. 스토아학파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모든 것을 미세한 것까지 다 미리 정해서 간섭한다는 개념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땅의 어디로 떨어지는지, 수탉들이 싸울 때 목의 근육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책 [섭리](Providence)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유아세례 대상인 아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모들이 주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신다거나 혹은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가르쳤다. 유아 세례를 통해 이 아이들은 영원한 정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막아서 그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 가르침은 천주교 내에서도 논쟁이 있고 학자들은 이런 개념이 플라톤주의, 스토아 학파, 마니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 그 뒤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유아에서 어른으로 확장하였다.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어거스틴은 이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 칼빈주의의 전적인 타락 즉 사람에게에는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영지주의에 물든 마니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마니교는 낙태나 유산된 아이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옥 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니교 신자들의 신은 믿음과 은혜를 먼저 사람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람의 죽어 있는 의지를 부활시켜야만 하였다. 어거스틴은 전적인 타락의 원인을 아담의 죄라고 바꾸었지만 여전히 스토아 학파, 마니교, 신플라톤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을 주입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지는 죽어 있다는 가르침을 유지하였다. [즉 그는 전적으로 속명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칼빈은 그대로 복사하였다.]

(*) 결론: 어거스틴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 TULIP을 발명했으므로 어거스틴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여전히 적합하다. 어거스틴의 5대 강령은 지금도 여전히 개혁 신학 내부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위키 백과 말고도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의 증언도 이와 일치한다.

(*) B.B 워필드: 칼빈이 가르친 교리 시스템은 어거스틴주의 바로 그것이며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The system of doctrine taught by Calvin is just the Augustinianism common to the whole body of the Reformers

존 파이퍼: 루터와 칼빈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스펠전: 칼빈 자신은 주로 어거스틴의 글들에서 칼 빈주의를 유도해냈다.

그 이유: 종교 개혁자들은 다 로마 카톨릭 출신,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회의 4개 박사 중 하나, 성인,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https://www.discerningtheworld.com/2013/01/29/calvin-augustine-roman-catholic-connection/>

결론: 칼빈주의의 원조는 어거스틴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자체를 다 어거스틴에게서 빌려 왔다.

그러면 루터와 칼빈은 왜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어거스틴이 그리하라고 했고 실제로 그리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354-430년)은 4세기에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신학자로 서구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라고 한다면,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주석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그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히에로니무스(제롬), 그레고리우스, 암브로스(암브로시우스) 등과 함께 서방(카톨릭)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사람이며, 아프리카의 북부 도시 히포에서 주교로 활동하였으므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린다. 그는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다.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이 저서들을 통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즉 모든 것을 예정한 다) 등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하여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신권통치 국가 혹은 그런 국가의 교회에 종속된 인간 즉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로봇 형태의 인간 개념을 만들어냈다.

어거스틴의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irresistible) 즉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하고(구원받아야 하고) 그 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받아야 구원자를 믿을 수 있다. 그래야 그는 로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로봇 조절 프로그램 혹은 리모컨에 의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은 오직 교회와 교회의 제사장들이 베푸는 성사(聖事) 성사(sacrament)란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는 종교 의식을 뜻하며 여기에는 유아 세례, 견진, 고해(고백), 성체(미사), 신품, 혼인, 종부 성사가 있다. 이 중에서 성체 성사는 미사 때 제사장(신부)에 의해 축성되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먹는 의식을 뜻하며 이를 영성체(領聖體)라고 한다. 성체 성사는 일곱 성사 중 가장 큰 성사로 다른 성사들은 성체 성사를 위한 준비이고 영성체로 완성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 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Christianity)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Churchianity)라고 부른다.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교회'라고 하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마22:21에서 "그러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지한다,

어거스틴은 신약시대에 신정정치를 구현하려는 국가 교회가 세상에 확립되는 시대에 태어나 마니교, 플라톤주의, 알렉산드리아 철학 등을 복합적으로 묶어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다.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잘 드러난다.

(*) 유럽 교회의 성서로 불린 <하나님의 도시> - 원제목은 '이교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도시'임 - 라는 '역사 사회 철학서'는 예수님의 복음에다 키케로, 마니, 플라톤 등의 이교 사상을 혼합시킨 것으로, 카톨릭 교회가 지상에 교회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한 자들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문자 그대로의 왕국 대신에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가시적인 교회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 주의가 처음부터 주장해 온 '무천년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유럽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 아니라 천주교 문명이다. <네이버 지식 백과>, 참고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현재의 교회 시대가 사탄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년왕국 시대(계20:1-6)라고 말한다. 그들이 믿는 천 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란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육체적 통치가 아닌 영적 통치를 말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 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미래에 다가올 천 년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계시록 20장에서 묘사된 것이 교회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물론 그것은 신정정치 국가 교회 체제인 카톨릭 교회였다.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시키려 하였고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신정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 한 이유이다.

(*) 어거스틴이 살던 북아프리카에는 주후 313-355년에 '순교자들의 교회'를 이끈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던 도나투스스를 따르는 도나티스트들이 있었다. 도나티스트들은 다시 태어난 성도들로 구성된 자신들의 교회만이 참되고 진정한 교회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들의 교회는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권위 있고 힘 있는 교회로 변성했다.

도나티스트들은 엄격한 교회 규칙의 적용과 교인의 순결 유지를 강조했고 세속적인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절대 반대했으며 교회 일에 세속 권력자가 간섭하는 것 역시 단호히 배격하였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약 교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4세기경의 카톨릭 교회는 이미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배도하였으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국가 교회로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이로써 북아프리카의 교회는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와 도나티스트들의 교회로 분열되었고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황제가 도나티스트 편이 아니라 카톨릭 편이라는 문서를 근거로 국가의 공권력을 투입하여 도나티스트 교회를 제압하였다. 어거스틴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즉 "그들을 억지로(강제로)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자유 교회를 국가 교회에 종속시키려 하였다.

어거스틴은 강압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보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직접 이를 시행하였다. 즉 그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적인 처벌’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회심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중세 천주교회의 십자군 원정과 종교 재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에서 나타난 그의 성경 해석은 중세 천주교회와 그 이후 개혁자들의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뒤 루터와 칼빈의 시대까지 약 1100년 동안의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교리에 따라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자들은 이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감행하였다.

루터와 칼빈 역시 어거스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므로 자기들의 주장이나 믿음에 대항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 제압하고 처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왜? 보고자란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중세 천주교, 칼빈의 제네바 통치, 루터교에서 드러나는 국가 교회 신정 정치 시스템의 오류이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시대는 인간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시기이다.

국가는 교회를 통해 다스려야 하므로 모든 나라가 다 국가 교회를 유지하였다.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등

그러다보니 인간의 자유의지가 박멸되었다는 교리가 국가 통치에 가장 좋은 교리가 되었다.

이것을 세워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고 제네바에 적용하여 몸소 실행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네이버 지식 백과 (*) 신권 정치, 신정 정치,

(*) 신정정치에서는 정치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心情)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정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 형태를 보인다. 신정정치의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빈(John Calvin)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고, 현대의 신정정치로는 혁명 후의 이란 정부를 들 수 있다. 칼빈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칼빈의 제네바 통치가 신정정치라는 것과 그의 신정정치 사상이 어거스틴을 통해 구약시대의 신정정치에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칼빈의 제네바 통치는 우리가 현시대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중동과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력 통치와 같거나 그 이상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으로 잘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이다.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지식 백과, 두산 백과>라는 세속 사전이 칼빈의 제네바 통치를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탄생시킨 이란 혁명 이후에 이란 정부가 시행하는 신정정치와 같은 것으로 분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성도들은 잠에서 깨어 이 같은 역사의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천주교회 같은 교회교의 속박이나 목사나 교회의 독재에 대항하며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어거스틴의 다른 사상: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Augustine of Hippo’ 항목에서 그대로 발췌함

1. 마리아 숭배: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렀다.
2. 교회: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혹은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자유 의지: 그는 원죄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으며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도 동일한 것을 가르쳤다.
4. 종말론: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평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주장하였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히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다.
5. 연옥: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다.

어거스틴 총정리

1. 신정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정치를 구현하는 국가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다.
2.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
3.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이어 받는다.
4. 인간의 자유 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5.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이 모든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의 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어거스틴주의, 그의 속명론

결론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하지만 자기들 생각에 오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행한 처참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죄해야 한다.

존 휘컴(Dr. John Whitcomb)의 말: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영적 혹은 교리적 오류로 인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교리적 오류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회의 분리와 징계라는 신약성경의 교리를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신정정치 국가로 오인하게 되었는가?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결합,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시스템이 생긴 배경, 무려 1500년간 성경 신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탄압한 것, 성경 박멸 등이 이루어진 역사를 살펴보고 싶다. 이것들을 알아야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문제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칼빈주의식 성경 해석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ㄱ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엡1:1-6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워 주셨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

이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자들의 모임
마16:18,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의미: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성경 말씀 자체 변개(천주교 다양한 역본들),
교리 변개, 심하면 이단들 등장

이를 막기 위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목사 겸 교사이다(엡4:11).

목사; 성경에 통달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균일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에 빠진 자를 구원해 내야 한다.

목사의 직무는 심히 중차대한 것이다.

성경의 여러 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교리

성경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라는 말이 있다. 엡1:4-5.

선택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었다는 말씀(행13:48)
성경과 교리에 능통하지 못하면 이러 미묘한 몇 구절에 의해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무조건적인
유기 심판 교리 등을 믿게 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는 미묘한 구절들이 몇 개 있다.

적당한 비유:

구원과 관련된 대다수 구절: 믿으면 구원받는다.

미묘한 몇 구절들: 마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믿게 해 주어야 믿는 것 같은 구절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안내자, 성경 교사 자칭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눈 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마23:24).

(*) 조그만 모기에는 긴장하고 커다란 낙타는 꿀꺽 삼키는 자들, 종교인들이 많다.

의미: 대다수의 명백한 것들은 간과, 소수의 미묘한 것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식으로 백성의 안내자라 자칭함, 너희는 눈먼 안내자들이다.

우리는 낙타를 먼저 보고 모기를 보아야 한다.

즉 산을 먼저 보고 그 안의 나무들을 보아야 한다.

즉 성경 전체를 먼저 보고 큰 그림을 그린 뒤 미묘한 것들을 그 그림에 맞추어야 한다.

오늘은 < >,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낙타와 모기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미묘한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려고 한다. 잘못된 교리 혹은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 설교, 이해력 성경 바로 보기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 나타는 삼키고 모기에 긴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하겠다.

먼저 낙타를 보아야 한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해야(구원시켜야) 그 뒤에 비로소 그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고, 이런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 전에 예정된 자들이
있다. 기독교 강요 21장 5항

그래서 전자(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100% 구원받고, 후자(비택자들)는 저항할 수 없는
정죄로 인해 100% 지옥 정죄를 받는다.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인간은 그 각본대로 지금 살고 있다.

지금까지 6번 강해를 통해서 이런 주장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성경은 사람이 자유 의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요3:16).

구원받는 것과 관련 된 신약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 복음이 제시될 때 사람은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는다. (*)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구절 100개,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3:16, 롬10:13

롬10의 전체 핵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이 선포되면 그 뒤에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백 구절: 회개해야 한다. 주님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 창세기 15장 6절, 히브리서 11장, 계22:17

이것이 구원과 관련된 낙타이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는 자기 뜻이나 교회 목사나 교단이나 인간 스승이나 전통을 믿는 자이다. 눈먼 안내자 혹은 눈먼 안내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 도랑에 빠진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이런 데서 떠나야 한다. 복음에 반응하여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교리, 나중에 자세히 강해할 것이다.

1-2절 인사

엡1:3-4 선택과 예정 설명

(*)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의미 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4,6절에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여기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4절을 이용하여 이 사람들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자기들의 의지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한다.

4절: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택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모기에 해당된다.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 긴장한다.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1. 3절과 4-6절을 떼어서 읽으면 안 된다. 전체를 보아야 한다.

2. 여기의 '우리'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 일단 여기의 '우리'는 13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다. 복음이 제시될 때 듣고 신뢰한 자들이다. 믿은 자들이다.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다.

3. 전체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지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4. 칼빈주의자들이 삭제하려는 단어가 4절에 들어 있다.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4절을 보자.

우리는 4절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여기는 우리 즉 성도들)을 선택하심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을 무시하고(간과하고) 무조건적으로 창세 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것만 강조한다. 그래서 고의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뺀다.

'그리스도 안에'의 중요성

바울은 엡1:1-13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자그마치 11번이나 한다(1, 3, 4, 6, 7, 10(2번), 11, 12, 13절에서 2번)

- 1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 3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 4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 5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
- 6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주셨고
- 7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 8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 9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 10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 11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 12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in whom, in Christ)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1장의 해석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에베소서에는 전체적으로 무려 4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 에베소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가?

답은 1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 13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14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사람 편에서 구원받는 순서이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 사람 아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죽는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은 뒤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다.

즉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 고후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골1:13-14,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믿은 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복음이 제시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38), In Jesus Christ(4),
In Christ Jesus(40), In Jesus(3), 총 85회, 바울 신학의 최고봉

어떤 사람들의 반론: 그런데 왜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하는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느냐?

(*)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어떻게 바울이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계13: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과정은 항상 동일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들의 행적을 아신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신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다.

즉 구원의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믿어 구원에 이를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거부할 것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이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다.

무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낙타이다. 미리 아심을 빼고 나며지만 말하면 모기가 된다.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을 하시지만 역사 속에서는 각 사람이 믿는 때가 있다.

(*) 뵤전1:1-2,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서, 2절의 선택받은 자들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른 자들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되고 예정이 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보시고 구별하셔서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 로마서 8장

2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8절의 우리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다 믿어서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29-30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이 된다.

그들을 부르신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한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아심이 가장 먼저 나온다.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창세 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그들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1. (*) 4절의 우리는 19절의 믿는 우리와 동일하다.

2. 엡2:8, 9를 보라.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도록 예정을 받는다(4).

그러므로 엡1:4를 읽고 모기에 긴장하고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1장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고 문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어떤 진리의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그 진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된다. 즉 무슨 모기 문제가 생기면 늘 낙타를 먼저 보고 문제 모기를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 행13:48을 보도록 하자.

(*) 행13:48,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파이퍼 등: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만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믿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않는다.

드디어 모기가 나왔다. 낙타를 보아야 한다. 벤전1:1-2, 롬8:28-30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드디어 때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믿고 구원받았다.

즉 사람들의 눈에, 성경 기록자 누가의 눈에 드디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ordain, 구원받는 자들의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구원의 대열에 집어넣으셨으므로

결론

성경 해석의 황금률: 먼저 낙타를 보고 모기를 봐라. 산을 보고 나무를 보라.

하나님은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신다. 예지 예정 선택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 의지 믿음 책임이 있다.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칼빈주의 바로 알기 맘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치명적인 독약:
천주교, 칼빈, 루터 등의 국가 교회의 태동

고후11:13-15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왜 하는가?(목사의 책무), 노만 가이슬러,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칼빈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의 무자비한 만행, 유대인, 자기들과 믿음 다른 자들 처형, 왜?

이유를 알고보니 칼빈주의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니고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의 작품: 어거스틴은 무력을 써서라도 믿음이 다른 자들을 교화하고 강제로 그들을 회개하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 교회 통치 체제 확립, 마리아, 유아 세례, 자유 의지 박탈, 연옥, 무천년주의 등 중세 1000년 이상 천주교 암흑시대, 국가교회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은 자기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당시 세상은 다 전체주의 독재 왕정 시대, 신정 정치, 어쩌면 이들도 그 시대정신의 희생자였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처형해서라도 자기들의 믿음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 주장, 실행

종교 개혁 당시의 세상: 국가 교회

국가 교회라는 개념(State church) 혹은 교회 국가(Church State)

어거스틴 이후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장악함 무려 1100년 이상, 국교 지정, 다른 자유 없음

(*) 그림 <https://kids.britannica.com/students/assembly/view/193178>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천주교

동유럽은 정교회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루터교: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핀란드

1534년경,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요구, 성공회(영국 국교회) 창설, 영국의 국교

1560년경, 스코틀랜드, 칼빈의 개혁주의 존 낙스가 도입함

존 칼빈의 제네바도 칼빈의 국가 교회

말 그대로 온 유럽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전체가 국가 교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마16:16, 18,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신약 교회가 세워짐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개혁 신학 하는 사람들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바나바 등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기록됨

계시록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성경 말씀들을 읽을 때 과연 한 나라의 왕이나 교회의 수장이라 불리는 교황이 한 국가의 교회

전체를 총괄한다는 교리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라, 목회 서신을 보라.

단 한 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중세 시대 전체주의 시스템의 교회는 상상해 볼 수도 없다.

국가의 수장이 혹은 교회의 수장이 한 국가의 국교를 지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떻게 국교를 지정할 수 있나? 다른 것은 안 되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영해하여 이런 제도의 이론적 근간을 마련했지만 그 역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 교회 밑에서 살았다. 즉 어거스틴 이전에도 이미 국가 교회가 존재하였다.

이 말은 AD 90년경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시점 이후의 어느 시점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사라지고 대신 국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생겼음을 뜻한다.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마지막의 요한도 이러한 전체주의 독재 국가 교회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인류를 멸하려는 마귀의 작품이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고후11:13-15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답: AD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치명적인 독약: 천주교, 칼빈, 루터 등의 국가 교회의 태동> 어떻게 국가 교회가 생겼는가? 이것을 알아야 칼빈과 루터 등 종교개혁자들의 국가 교회 사상을 파악할 수 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신칭의는 알았지만 어거스틴에게서 배운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여 국가 교회를 하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론, 교회론을 따르면 안 된다. 칼빈주의가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므로 우리는 그 이론에 반대한다.

초대교회 이후 콘스탄틴까지

초대 교회 이후 콘스탄틴 시대까지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교도 국가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을 읽기 바란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이루셨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다. 기독교는 산을 에워싸고 대양을 건너갔으며 왕들을 떨게 하였고 폭군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뒤집어엎었다! 실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하였다(행17:6).

그러나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 왕 노릇하기 시작했다. 계2:6, 15에는 니콜라당(Nicolaitans)이라는 이단이 나온다.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제사장 성직자 계급의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priest)이라 부르며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사도들 시대에서와 같이 영적인 방법과 진리로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방법으로 치리하며 스스로 성령님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때 성도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유3-4).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 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당시 기독교는 널리 퍼지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황제숭배를 반대한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되게 고소를 당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며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였다. AD 65년경의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부터 AD 311년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까지 10명의 황제들 기간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사위 갈레리우스(AD 303-311): 이때가 최악의 박해시기,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 드릴 것 강요,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짐, 교역자 투옥됨, 기독교인들의 권리 정지

<https://blog.naver.com/jswoo001/222357578368>

(*) 위키 백과의 증언: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서력기원 1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른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유대교의 유대인에 의해 또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의 다수를 통제한 로마인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4세기 초(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종교의 형태가 합법화되었으며(기독교 공인)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회가 되었다.

즉 기독교는 여러 곳으로 전파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밀라노 칙령 (*) 밀라노 칙령: 313년 2월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치니우스가 밀라노에서 회담하고 같은 해 6월에 발표한 칙령이다.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박해 시대에 몰수되었던 교회의 재산이 모두 반환되었고, 그리스도 교도를 속박하던 법률도 모두 폐지하였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밀라노 칙령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즉 이것은 엄밀히 말해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기독교 승인이다.

콘스탄틴과 국가 교회의 시작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 도처에서 밀려드는 이교도들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가장 교묘하게 이룬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 콘스탄틴 황제 (Constantine, 콘스탄티누스 1세, 272-337년)이다. 그는 306-337년까지 재위한 중기 로마 황제로서 동방 정교회는 (*)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라 부른다.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그는 330년에 공식적으로 비잔티움(터키의 이스탄불)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로 개명되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승인 이후로 교회의 주교들(감독들)은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황제는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교회 공회 등 주재,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이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했고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이교주의(샤머니즘, 신비주의 등) 사이에는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다(국교가 되었으므로).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다(타협과 배교).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 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세속 역사가들과 천주교 사관을 가진 교회 역사가들이 한목소리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한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의 기독교 진흥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수많은 내전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된 콘스탄틴에게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 황제는 교회의 권위 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임명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하였다. 이로써 국가 교회에서 황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어 권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국가 교회'를 국가 체제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을 교황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교회 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국가 교회'나 '교회 국가'는 신권통치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황제든 교황이든 국가의 수반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혹독한 속박 속에 가두기 때문이다.

콘스탄틴의 개종과 업적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소위 ‘밀비안 다리 전투’로 알려진 전투에 직면해야 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희생 짐승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던 하루스피스라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했는데(겔21:21) 신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자기가 그 전투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점괘를 얻었다. (*) 그러나 그가 후에 말한 것처럼 환상 또는 꿈에서 그에게 십자가가 나타났으며 “이 표적을 갖고 정복하라.”는 말이 있었다. 그 다음 날인 주후 312년 10월 28일 그는 십자가가 달린 깃발을 내세우며 진격했고 그 결과 그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그의 적을 패배시켰고 드디어 개종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콘스탄틴의 십자가 환상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역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유일하게 이 이야기의 증거 혹은 권위를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is, 265-340)가 지은 <콘스탄틴의 생애>에 두었다. 유세비우스는 이단인 오리겐의 추종자로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며 권력을 누린 어용학자이다. 그래서 현시대 학자들은 콘스탄틴에 대한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유세비우스’(Eusebius) 항목

또한 콘스탄틴이 실제로 환상을 보았다 해도 과연 우리는 그 환상을 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평화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교도 황제에게 십자가를 나타내는 군기를 만들고 그 표적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죽이도록 지시했다 말인가?

만일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콘스탄틴의 개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의 개종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설령 그가 그 시대의 교회 행습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제정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경적 의미에서 참다운 개종 혹은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실이 많이 있다. 역사가들은 그의 개종이 그 시대의 표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개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가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회심 후 그가 몇 차례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요일3:15).

콘스탄틴은 미네르비나를 첫째 아내로 두었고 그녀를 통해 크리스푸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의 둘째 아내는 파우스타인데 그녀를 통해 그는 세 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크리스푸스는 뛰어난 군인으로 그의 아버지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니케아 공회가 열린 직후인 주후 326년 그는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사형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내인 파우스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파우스타의 고소 내용이였다. 파우스타는 그의 첫째 아내의 아들 크리스푸스를 그런 방법으로 몰아내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여 사실은 그의 아내 파우스타가 그의 아들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믿게 했으며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 넣고 질식사시켜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였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목 졸라 죽였다. 이처럼 잔인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황제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 처형을 폐지하고 로마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행하던 박해도 중지시켰다. 그러나 과연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아니면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했을까? <카톨릭 백과사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몇몇 주교들은 궁전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심지어 황제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로 높여 찬양했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호의를 베풀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폭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4권, p.300, ‘콘스탄틴’ 항목

유명한 역사가 두란트가 콘스탄틴에 대해 내린 결론도 위의 진술과 거의 같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참된 것이었는가? 과연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 행위였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지혜의 극치였는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하였다.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였고 무엇이든지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문명의 역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p.655-656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콘스탄틴은 잘 알고 있었다.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제국이 분열되자 그는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종교를 혼합하여 제국에 필요한 통일된 힘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비록 그가 이교 신전들로부터 자기의 형상을 제거하고 자기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황제의 신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로마 카톨릭 교황의 호칭인 '최고 승원장'(Pontifex Maximus) 지도자로 불린 그는 이교 예배를 돌보고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330년 콘스탄티노플의 봉헌식에서도 그는 반은 이교도 의식을, 반은 기독교 의식을 사용했다. 태양신 마차가 시장에 진열되었으며 그 위에 십자가가 놓였다. 콘스탄틴이 만든 동전들 중 어떤 것들은 십자가를 지니고 있지만 마르스나 아폴로를 나타내는 것들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교도들의 마술적 방식을 신봉하고 이로써 농작물을 보호하고 질병을 고치려 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심지어 <카톨릭 백과사전> 안에 잘 지적되어 있다. 콘스탄틴의 방법 즉 혼합주의 개념은 분명히 로마 카톨릭 주의가 발전되고 재물을 늘리며 부유하게 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에 비로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제거되는데 죽기 오래 전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이후의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콘스탄틴이 세운 '국가와 교회의 일치'는 결국 구약시대의 '신정정치'(Theocracy)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신정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신권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한다.

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신정정치를 구현하려 하였으며 바로 이를 위해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 왕국들까지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통치 모델을 완성하였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사상은 1000년 이상 중세 시대를 지배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떨치며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정교 관계'라는 글에서 이범성 교수는 제정일치(祭政一致) 혹은 정교일치(政教一致)의 국가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구약시대의 전통은 제정이 일치되거나 적어도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형태를 취했지만 신약시대 복음 전도자 들의 전통은 정교가 분리된 형태를 취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대로 제자들의 의견이 되었고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도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정교 분리(국교 지정 No!)를 의미했다.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던 4세기 초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손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이로써 정교유착(신정정치) 시대가 왔다.

(*)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권에 대한 민족 국가들의 반대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을 뿐이다. 그것은 교황과 황제의 제국적 정교일치를 개신교 주교들과 왕

혹은 성주들의 정교일치로 전환한 모양에 불과하다. 여전히, 더욱 밀접하게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했고 국가는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하였다. 루터는 독일에서 정부의 권력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교회의 선한 역할 분담론을 선전했으며 칼빈은 스위스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장려했다. 한편 헨리 8세의 수장령을 통한 영국 국교회의 탄생은 로마 교황청 대신에 정부와 더욱 밀착된 정교일치를 가져왔다. 종교개혁은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정교유착에 불과하다.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56>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 정치 모델이 확립된 이후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유럽의 모든 국가는 오직 카톨릭 교회만을 국가의 교회로 인정하였고 천주교 외의 다른 믿음은 모두 이단 교리로 정죄받았다. 반면에 동유럽은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국가 교회가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루터교 역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국가 교회가 되었고 칼빈의 장로교는 나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었으며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고 말았다.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이 이룬 ‘종교개혁’(Reformation)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 종교의 틀 안에서 항거하며 개혁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유아 세례, 성직자 계급 체계, 예배당의 성전화(聖殿化), 카톨릭 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종교통합 등). 사실 역사는 인간의 종교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인 목사, 교회 혹은 성도들을 조심해야 한다. 종교는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단 신학과 교회나 목사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 위에 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며 결국 이들은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늘 살피는 ‘성경 신자’(Bible believer)가 되어야 한다. 유일하게 그것만이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 21세기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 교회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국가가 지정해 주는 교회에만 다녀야 하고 거기서 지정해 주는 믿음만을 따라야 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암흑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쓴 무리들이 있어서 결국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통해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에 우리는 큰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콘스탄틴의 국가 교회 확립 이후로 약 1400년 만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허락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며 국가 교회와 투쟁해서 얻은 고통의 산물이다.

국가 교회를 반대한 사람들

국가 교회가 대두되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가 교회 신정 정치 반대, 국교 지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지역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다.

즉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1. 국가 교회: 구약식 신정 정치, 전체주의 독재, 왕, 주교, 황제 등이 수반, 천주교, 개신교
2. 신약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국교 같은 것은 안 된다.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

이들은 누구일까? 국가 교회를 주장하고 옹호하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국가와 교회의 분리, 유아 세례 반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기독교의 참된 역사(*):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제국에서 노바티안들이 일어났다. 이들 역시 유아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후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들이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다. 또한 7세기 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이 초대 자유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다. 그 뒤 자유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이라는 이름의 자유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젠시스들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의 후에; 롤러드

그 이후 루터, 칼빈, 츠빙글리의 시대에는 재침례교도들(메노나이트와 침례교도)

(*) 개신교 이전의 성경 신자들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가 교회가 빼앗으려 했던 것이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칼빈주의와 침례성도들의 차이

천주교, 루터교, 칼빈주의자들 국가 교회(국교 인정, 자유 의지 박탈). 침례성도들 신약 교회(국교 불인정, 자유 의지 인정)

다음 시간, 인류가 국가 교회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칼빈주의 바로 알기 100
영국 헨리 8세의 종교 개혁
국교회 성공회,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의 출현

엠피-3장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이 주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종교 개혁 시대 국가 교회, 신정정치 체제를 알아야 한다.

역사의 명백한 사실들: AD313년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혼합, 국가 교회 시작, 어거스틴 자유의지 박탈, 무천년주의, 전적타락, 무조건적인 예정 등 국가 교회 기초 확립, 루터와 칼빈 시대까지 국가 교회 이어져 내려옴.

(*) 종교개혁 당시 전 유럽이 국가 교회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천주교

동유럽은 정교회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루터교: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핀란드

1534년경, 영국, 헨리 8세의 이혼 요구, 성공회(영국 국교회) 창설, 영국의 국교

1560년경, 스코틀랜드, 칼빈의 개혁주의 존 낙스가 도입함

존 칼빈의 제네바도 칼빈의 국가 교회

국가 교회는 신정 정치: 종교의 자유가 없다. 국가가 지정해 주는 종교, 왕이 변하면 국가의 종교가 변한다. < > 영국의 종교 개혁, 국가 교회의 진면목, 청교도 및 분리주의자들 출현, 종교의 자유

오늘의 핵심: 국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예를 보여 준다. 양심의 자유, 성경 해석의 자유 박탈

이 강의를 통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종교 개혁 시대의 교리 교회관, 구원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칼빈주의 등은 신약성경이 말하는 교회관, 인간관, 국가관을 말하지 않는다.

기초가 다르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칼빈, 루터 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단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장로교회, 루터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의 영적인 압박이 아니라 풍요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중요함을 공부하는 것이다.

결코 장로교 모든 교리가 아니라 국가 교회를 위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모순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 국가교회인데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박탈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의 종교 개혁

영국의 종교 개혁은 독일이나 제네바에서의 개혁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크다. 청교도, 나중에 미국의 침례교, 독립 전쟁, 종교의 자유 획득(모든 나라 모든 사람), 성경 해석의 자유, 예언 대성회, 온전한 성경 해석, 관주 및 주석 성경의 출현

성경 번역: 영국은 거의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 번역을 착수한 국가

1380년경 위클리프, 1526년경 틴데일, 1611년 킹제임스 성경

(*) 영국: 인구 6500만(신교 구교 포함 60%),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1282년 웨일즈는 잉글랜드에 정복됨, 1536년 헨리 8세의 웨일스 법, 영국(잉글랜드)에 완전 합병

아일랜드: 1534년 헨리 8세의 침입, 약 400년간 영국의 통치, 1937년, 남부 아일랜드 독립

국교 문제로 폭탄 테러 등 발생함(성공회와 카톨릭)

오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병합되는 이야기, 역시 국가 교회 문제

헨리 7세(1457-1509, 재위 기간 1485-1509) 튜더 왕조 설립

1603년 전까지 대영제국은 둘로 나뉘, 잉글랜드는 튜더 왕조, 스코틀랜드는 스튜어트 왕조

튜더, 스튜어트는 성이다

1603년 제임스 1세에 의해 한 왕조, 공식적으로 1707년 연합 왕국

튜더 왕조는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1457-1509, 재위 기간 1485-1509, 24년 통치)에 의해 창건됨. 1485-1603년까지 118년 동안 지속됨

헨리 7세의 재위 기간 내내 평화가 없음

헨리 7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국제적 혼인 외교 정책을 시행함

장남인 15살의 아더, 스페인의 페르난도(페란도) 2세와 이사벨 1세 사이에 난 딸 아라곤의 캐더린(16살)과 결혼시킴. 딸 마가렛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싸우지 않고 서로 잘 지내려고), 다른 딸은 나중에 프랑스의 루이 12세와 결혼함

캐더린과 결혼시킨 이유: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스페인의 위상 최강의 강대국, 스페인과 잘 지내야 한다.

1501년 장남 아더는 캐더린과 결혼했는데 그 뒤 6개월 지나서 1502년에 죽고 만다.

캐더린의 지참금, 스페인과의 전략상 이익을 놓치지 싫어한 헨리 7세는 아더의 동생 헨리(당시 12살)를 7년 연상의 캐더린과 결혼하게 함

당시 영국은 카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음. 카톨릭 교회법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교황청에 특별 면제 요청, 허락, 주례는 캔터베리 대주교 워햄(William Warham)이 섬

캔터베리 대주교: 카톨릭 시절(597년부터), 영국 카톨릭 교회의 최고 성직자

성공회 시절: 영국 성공회의 최고 성직자(크랜머부터...)

헨리 8세 등장(1491-1547, 56세, 재위 기간 1509-1547, 38년)

(*) 1509년 헨리 8세가 18살에 드디어 왕이 됨, 헨리 8세는 38년의 재위 기간 중 종교 개혁, 영국 국교회 수립, 정치적 중앙집권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은 종교 문제, 자식들 문제, 박해

(*) 헨리 8세는 6번의 결혼, 여성 편력

1. 캐더린

그녀의 자녀들: 여러 명의 아이들, 다 죽고 메리만 유일하게 살아남

1526년 메리가 10살이 되던 해, 캐더린은 41살, 헨리 8세는 왕자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아마도 자기 형수와 결혼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생각함.

헨리 8세, 캐더린의 시녀 앤 불린에게 끌림, 앤 불린은 왕의 마음을 얻게 되자 대담하게도 왕비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없음을 선언했다. 이러한 태도는 헨리 8세를 더욱 자극했고 왕은 대신과 의회를 종용하여 마침내 캐더린과 이혼했다.

그리고 정식 이혼 직전인 1532년 12월에 앤은 결국 임신했으며 1533년 1월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앤 불린 임신, 왕자 기대, 그러나 결론: 못 낳음

헨리 8세는 18살에 즉위, 캔터베리 대주교 워햄(William Warham)이 국사 처리

그 뒤 추기경 울지(Thomas Wolsey) 등장, 헨리의 치세 기간 절반 처리

그는 투철한 카톨릭 신자(아직 영국 국교회가 아님)

울지는 1515년에 레오 10세(재위 기간 1513-1521)에 의해 추기경이 되었고 한 달 뒤 영국 대법관이 되어 국사를 주도함. 즉 토마스 울지는 국가 권력, 교회 권력 장악

헨리 8세는 이혼 의중을 교황청에 알림.

울지는 원래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 진정한 결혼이 아니므로 이혼 허가 요청

그러자 당시 교황 클레멘트 7세(재위 기간 1523-1534년)는 이를 승인하려고 함

1528년 캄페지오 추기경(Lorenzo Campeggio)을 영국에 파견

당시 스페인의 카를 5세(신성로마제국 황제, 보름스 회의 루터 소환)는 캐더린의 조카(캐더린은 카를 5세의 이모), 캐더린은 자기 조카인 카를 5세에게 결혼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당시 카를 5세는 교황을 좌지우지함, 군대를 파견하여 로마 교황을 습격함

교황은 결혼 무효화를 거부하게 됨, 캄페지오 추기경 로마로 귀환함
헨리 8세는 울지 대주교를 추방함, 울지의 뒤를 이어 토머스 크랜머가 등장한다.

2. 앤 불린

종교 자문 크랜머, 주요 카톨릭 대학들에게 이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함. 헨리 8세 이를 실시함
거의 모든 대학이 헨리와 캐더린의 결혼은 불법이라고 함. 헨리는 카톨릭과의 결별 결심
로마를 위협하여 크랜머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함(1532-34)

영국 내 성직자들을 교황 밑이 아니라 자기 밑에 두도록 법령 개정

1533년 앤 불린과 결혼함

크랜머에게 캐더린과의 이혼 적법, 앤 불린과의 결혼 적법 공포하게 함, 앤 불린 1533년 6월에
정식 왕비가 됨

교황은 헨리 8세 파문, 그리고 9월에 엘리자베스 출생, 헨리 8세의 실망

그녀는 결국 아들을 낳지 못하고 1536년 여러 가지 누명을 쓰고 참수형을 당함

영국 국교회 탄생

1534년 2월 11일: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발표하여 영국 국교회를 탄생시킴

내용: 영국 모든 교회는 국왕이 관할한다.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교회로 출발한다. 국왕이 통치 권력, 종교 권력의 수장
반역법 제정: 국교의 수장인 왕에게 반역하는 자 처형법

반대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유포피아의 저자 토머스 모어(헨리 8세의 친구, 카톨릭 교도), 모어는
루터의 종교개혁 반대, 원래는 헨리와 한편, 그런데 돌연 헨리의 정책이 바뀔, 헨리 8세와 교황의
충돌이 점차 심해지자 모어는 헨리 8세보다는 교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모어는 앤 불린을 왕비로 인정하는 의회 선언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앤
불린의 아이가 왕위계승권을 갖는다는 왕위계승법(Act of Succession)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앤 불린의 아이가 국왕이 될 경우 로마 교회의 잉글랜드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완전히 끊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모어는 런던탑에 갇히게 되었고 1535년 7월 6일, 반역죄로
사형을 당하였다.

그 뒤에도 헨리는 여러 명의 왕비를 두고 1537년에 제인 시모어로부터 아들 에드워드를 얻음

헨리는 공식적으로 6명의 왕비를 둬, 이혼, 참수형을 시킴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아이들은 세 명밖에 없음: 메리,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헨리 8세 영국 국교회 세움, 양심의 자유 불인정, 핍박 감행

그는 성경 번역자 틴데일을 처형하게 함, 1536년에 화형 당함,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국가 교회: 성경 신자들 탄압, 종교의 자유 불가능, 당시 세상에서는 이런 자유 상상 못함

1547년 헨리 8세 서거, 에드워드가 왕이 됨(에드워드 6세)

1547-1553년까지 6년간 통치, 9살에 즉위 16살에 죽음

피의 여왕 메리(재위 기간 1553-1558년)

에드워드 6세 사후 왕위 계승 문제, 결국 1553년 메리가 왕이 됨, 5년 통치

메리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성, 그런데 17세 때에 충격적인 소식, 아버지 헨리 8세와 국회, 그리고
영국 교회가 그녀를 불법 사생아라고 부르기 시작함, 수치심 사생아 낙인

그런데 메리가 37살이 되자 여왕이 됨

그 다음해인 1554년 7월 25일 스페인의 필립(펠리페 2세)과 결혼함

하원의 결의: 외국인과 결혼 안 된다. 도처에서 난동

결혼 강행, 아이를 낳아야 카톨릭 유지, 그러나 아이 출산 불가능,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떠남
메리는 평생을 카톨릭 교도로 살려고 하였다.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면 왕위 계승자 자격 박탈
아버지와 어머니 캐더린과의 결혼은 무효가 되고 자기는 사생아가 됨

그래서 그녀가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으로 회복시켜야 할 상황이 되고 맙
메리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신앙을 강요할 것이라고 선언함: 국교 강요

헨리 8세와 자기 어머니 캐더린의 결혼 합법, 자신은 적법한 왕위 계승자
에드워드 6세 때 만든 종교법 폐지

그녀는 개신교(영국 국교회)를 대적하는 일에는 잔인함을 넘어서 광신적이었다.

메리는 프로테스탄트들을 탄압하기 시작함, Marian exiles,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
푸르트 등으로 피신, 존 나스도 이때에 대륙으로 도망감

크랜머 대주교 투옥, 커버데일, 로저스 등 성경 번역자 추방, 결국 개신교 지도자들은 대륙으로 떠남
메리는 로마 교황청과의 화해를 원함, 영국인 추기경인 레지널드 폴을 특사로 파견함

결국 상하원의 의결에 따라 영국은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함, 폴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됨

1555년부터 개신교도 박해가 더 심해짐

성경 번역자 존 로저스 화형, 크랜머 대주교 화형

(*)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피의 메리(Bloody Mary)라는 별명, 1558년 11월 17일 죽음
(공식적으로 종교 문제로 죽인 사람 284명), 사실 메리 외에도 헨리 8세, 메리, 그 이후의 엘리자베스,
제임스 1세, 찰스 등 국가 교회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임
엘리자베스 여왕(1533-1603, 재위 기간 1558-1603)

스페인의 카를 5세는 메리에게 그녀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를 죽이라고 종용하였으나 그녀는 하지 못함

(*) 엘리자베스는 25세에 왕이 됨, 자기 아버지 헨리 8세와 같이 영리하고 계략에 능한 여인, 처녀로
지냄(미국 식민지 버지니아 주), Virgin Queen

45년 동안 통치함(세익스피어, 1564-1611), 영어 및 영문학의 최고조

일단 전임 메리 여왕의 카톨릭 국교에서 탈피함

윌리엄 셰실 정치 고문(온건한 프로테스탄트)

1559년 1월 수장령, 6월 통일령(종교 의식 통일, 의례 예배 의식, 기도, 성례 등)

영국 교회에 대한 교황청의 통제 간섭 배제

모든 카톨릭 주교들 반대, 모두 주교직 박탈, 매튜 파커가 새롭게 캔터베리 대주교, 주교들 임명
어려운 과정: 젊은이들 개신교, 서민 대중은 카톨릭

스페인의 간섭, 1571년 반 교황 법 통과, 재위 45년 동안 221명의 카톨릭 교도들 처형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천주교, 루터, 칼빈 사상 혼합, 정권 유지가 최우선

청교도 등장

교회용어사전,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 1세가 1559년 통일령과 수장령을 통해 확립한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여 국교회의 가톨릭 제도를 배척하고 칼빈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 ① 교회의 해석이나 전승보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② 예배에서 가톨릭의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며,
- ③ 특권 계급을 암시하는 사제들의 제복 폐지, 성만찬의 비성경적 의식을 반대하였다.

청교도(Puritan)라는 용어는 엘리자베스의 통치 기간인 1564년부터 사용됨

성직자들의 복장 문제, 청교도 주장: 성직자의 제복 사용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카톨릭 잔재를
없애기 위해 의복 제도 폐지 건의, 부결됨

1572년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계급 체제 대신 장로교 형태의 정부 조직을 도입하자고 주장함
8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돌아옴

주동자: 게임브리지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칼빈의 기독교 강요, 장로교식 교회 체제

엘리자베스 여왕: 청교도는 국가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세력, 수장법으로 다스림

청교도들은 도망하고 지하로 숨음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으로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대표 편집자는
윌리엄 위팅엄(William Whittingham, 1524-1579)이다. 위팅엄은 영국 청교도(English

Puritan)로 1533년 메리 여왕 박해 시절에 대륙으로 피신했고 장로교 신봉자였다. 위팅엄은 1555년 존 낙스와 함께 제네바로 건너가 칼빈 등과 같이 활동하였고 1559년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존 낙스의 뒤를 이어 목사로 사역했다.

제네바 성경은 성경 여백에 제네바의 성경 교사였던 칼빈의 사상을 담은 주석들을 많이 담고 있다. 즉 제네바 성경은 장로파 교리 혹은 체계에 입각해서 번역되고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로교 편향 주석 및 용어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교인 성공회를 위해 비숍(주교 혹은 감독) 성경(1568년) 사용 강조

제네바 성경이 대성경(Great Bible)을 제치고 평민들 사이에 인기를 누리자 교회 당국은 거기에 실린 칼빈주의적인 주석에 반기를 들었다. 그리하여 대주교 파커가 주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성경의 개정판을 만들도록 해서 출판된 성경이 이른바 주교 성경(비숍 성경)이다.

당시에는 성경마저도 국교회 혹은 장로교도 등에 의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용어 등이 바뀔 엘리자베스는 국가 통치를 위해 카톨릭과 청교도(분리주의자들) 사이의 중도 노선, 영국 국교회 구축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는 엘리자베스 때에 기초가 완성됨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 영국 공격, 패배, 제해권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감

1603년 엘리자베스 사망,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 통합왕국, 스튜어트 왕조 제임스 1세(1566-1625, 1567-1603(스코틀랜드, 36년)

1603-1625(통합 왕국, 22년), 무려 59년의 삶, 58년 동안 왕)

(*) 1603년부터 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전체를 통치함, 통합 왕국의 제임스 1세,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종교 개혁과 국가 교회, 스코틀랜드는 어떤 곳인가?

존 낙스: 스코틀랜드 사람, 카톨릭 사제, 전도자 위샤트를 만나 개혁자가 됨, 종교 개혁을 주도하다가 프랑스 군대와 싸움, 잡혀서 노를 젓다가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구출됨, 영국에서 설교자로 일함 에드워드 6세 사후 메리 여왕의 국교도 개신교 개혁자 핍박

1554년 영국을 떠나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 피난민 교회, 그 뒤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배움

1559년 스코틀랜드 귀환, 카톨릭 교도들과 종교 개혁 전쟁, 승리

1560년 존 낙스와 6명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작성, 최초의 장로교회 구성

1567년 1살짜리 제임스가 제임스 6세로 왕이 됨, 대관식에서 녹스가 설교함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의 교육: 장로교도인 조지 뷰캐년이 스승, 장로교 교육

이러는 가운데 1603년 37살의 제임스 6세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이 됨, 제임스 1세 제임스 1세의 문제: 종교로 인한 국가의 분열, 영국 국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청교도, 분리주의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용어로 번역된 성경과 주석을 사용하기 원함 결국 국민 통합을 위해 교파나 교리에 상관없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문대로 번역된 성경의 필요성 대두 기존 성경들은 모두 사적인 번역

왕은 50여 명의 학자들 구성됨(청교도, 국교회 등),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공적인 성경

기존의 모든 성경을 대체하며 400년 이상 통령하며 베스트셀러

그러나 제임스 역시 왕권신수설, 영국 국교도지지, 다른 신앙 가진 자들 핍박

결론

2세기 로마 시대로부터 콘스탄틴, 어거스틴, 1100년의 중세 암흑시대, 종교개혁 시대, 여전히 국가 교회, 이신칭의 카톨릭 탈출 노력, 그러나 국가의 통치자들, 칼빈, 츠빙글리, 루터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국가 교회를 탈피하지 못함

교회관의 왜곡(신정정치, 구약 시대 교회), 인간관: 자유 의지 박탈,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박탈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용기 감사. 그러나 그들에게서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기는 힘들다.

재림, 천년왕국, 휴거, 적그리스도 등 전무함 이스라엘 대체 신학

우리는 지금 모든 교리가 확립된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을 보고 바르게 알 수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부활, 루터와 칼빈 등이 지금 살았다면 국가 교회, 칼빈주의, 유대인 박멸 등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0
토머스 제퍼슨의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조:
로저 윌리엄스와 침례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행23:1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명백한 사실들: AD 313년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혼합, 국가 교회 시작, 어거스틴 자유의지 박탈, 무천년주의, 전적타락(인간 자유 박탈), 무조건적인 예정 등 국가 교회 기초 확립, 루터와 칼빈 시대까지 국가 교회 이어져 내려옴.

종교개혁 당시 모든 나라가 국가 교회 시행,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음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 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이 존재함

국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신약 성경에 있는 지역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들은 누구일까?

국가 교회를 주장하고 옹호하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국가와 교회의 분리, 유아 세례 반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 개신교 이전의 성경 신자들

후후 3세기의 노바티안, 후에 '순순한 자들 카타리가 되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

12세기경의 왈덴시안,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의 뒤를 이은 알비겐시스

위클리프의 후에; 롤러드

그 이후 루터, 칼빈, 츠빙글리의 시대에는 재침례교도들(메노나이트와 침례교도)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가 교회(천주교, 칼빈, 츠빙글리)가 빼앗으려 했던 것이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 >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국가 교회를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재침례교도들의 등장

종교 개혁 시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재침례교도들의 등장

재침례교도들의 주장: 국가 교회의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유아 세례는 무효이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이다.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유아 세례, 성인 세례는 무효이다. 다시 받아야 한다.

AnaBaptist

AnaBaptist의 강조점은 침례가 아니라 재침례이다. 침례교인들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1. 스위스 재침례교도들

(*) 2018년 6월 5일 국민일보 기사

1525년 스위스 취리히, 펠릭스 만츠의 집에서 모임이 시작됨, 스위스 형제단.

1525년 1월 17-18일, 츠빙글리와 스위스 형제단의 유아 세례 논쟁

1월 21일, 만츠의 집에서 성인 침례(집행자 그레벨, 관수례), 스위스 형제 교회 출발

취리히 시 의회: 재침례 받는 자 벌금, 추방

시 의회를 장악한 츠빙글리: 재침례교도 두 명 구속

1527년 1월 5일 만츠는 취리히 시민들과 만츠의 어머니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익사 당함

그레벨은 1525년 2월 만츠의 집에서 침례

1525년 4월 9일 지터 강에서 500명의 신자들에게 침례
1525년 10월, 유아세례 부인, 성인 침례 시행 죄로 무기 징역
그 뒤 도망했다가 1526년 26세의 나이로 페스트로 죽음
재침례교도들의 교회: 종교개혁 시대 최초의 자유 교회

만츠와 그레벨 모두 츠빙글리의 제자들

츠빙글리는 성경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는 실제로 그리 행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함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점: 양심의 자유 핍박, 정부 권력을 동원해 성경대로
믿겠다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핍박함,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교리에 따라

2. 네덜란드의 재침례교회: 메노나이트

네덜란드는 종교개혁 공인 본문 저자 에라스무스의 조국이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카를 5세는 1525년 재침례교도들에 대한 칙령, 당사자는 화형에 처한다.

숨겨준 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여자들은 생매장 한다 등

여러 사람들이 화형, 수장, 고문, 약 3만 명의 재침례교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

(*) 이 와중에 메노 시몬이 나옴; 원래 카톨릭 신부, 종교개혁자들은 예외 없이 천주교 신부(이단자)

1. 화체설 부인, 2. 유아세례 부인, 3. 재침례교도들 처형 반대(양심의 자유 허용)

결국 1536-1537년경 침례 받아 재침례교도가 됨, 침례교 사역자가 됨

이단자, 쫓겨 다니면서 복음 선포, 침례

1. 로마 카톨릭 유아세례, 화체설 부인

2. 신약 교회를 해야 한다(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의 문제, 구약식 교회 정교 일치 주장)

카톨릭 사제직을 버린 1535년부터 1561년까지 25년 동안 국가와 정부의 추격, 추방

이단 소리를 들음, 그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추구

메노나이트: 메노파 사람들 수천 명 순교

그는 침례 성도였지만 그의 후예들은 메노나이트 형성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일부는 미국 이주: 펜실베이니아 저먼타운

1717년 스위스 형제단,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오하이오, 세상과 격리해서 사는 아미쉬(*)

영국의 종교 탄압 피난자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메노파 영향을 받고 귀국하여 영국 침례교회 개척

영국의 침례교회

영국: 카톨릭, 헨리 8세 국교회, 국교회의 타락

분리주의 운동: 영국 국교회 내에서의 개혁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루터, 칼빈, 츠빙글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다. 국가와 정부를 없어서 교회 통치 실현

영국 문헌: 1528년, 다수의 재침례교도들이 영국으로 이주함

1573년경 약 5만 명의 재침례교도들

1538년 헨리 8세는 재침례를 주장하는 자들 추방 조치, 핍박

1593년 영국의 일단의 무리들이 네덜란드의 캄펜으로 이주함

거기서 네덜란드 메노파의 영향을 받아 재침례교 집단을 이룸(영국인들)

이들은 캄펜에서 나르텐으로 갔다가 1607년 암스테르담으로 집단 이주함

거기에는 (*) 존 스마이스(1154-1612)

그는 칼빈주의 교회 목회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앙의 자유 불인정

결국 1607년에 교인들을 이끌고 암스테르담 이주, 2년 뒤 메노파(재침례교도들)의 영향

1609년 칼빈주의 교리를 버리고 믿는 자에게 주는 침례를 받음(자기 스스로 물을 부음, 재침례교도)

Self Baptist, Se Baptist

그리고 토마스 헬위즈(Thomas Helwys) 등에게 관수례를 베풀(재침례)

스마이스는 메노파로 아예 들어가려고 함

헬위즈는 반대함(*), 1611년 무리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에서 스피탈필드 침례교회를 세움
최초의 영국 침례교회, General Baptist, 속죄에 제한이 없다.

이들은 재침례교도들과 다른 점도 많다.

하지만 구약식 교회 반대, 종교의 자유, 믿는 자들만의 침례, 회원권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전 유럽에서 재침례교회 등장

이들의 특징: 사도 바울의 신약 교회, 이후로 자유 교회, 이단 소리를 들으며 신약 교회를 지향함
역사를 거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림

상세한 신앙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약 교회 추구

신약 교회, 구약 교회는 안 된다(국가 교회 안 된다). 신자들의 침례(유아 세례 반대), 신자들의
회원권

종교개혁 시대에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함, 메노파가 되기도 함

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침례교회가 시작됨

침례교회는 1611년에 영국에서 생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한반도 땅에 한민족이 살아 왔다. 대한민국의 기원 1948. 8. 15, 공식적인 간판
그런데 이것이 한국이나 한국 사람의 기원은 아니다.

1948년 이전에는 한국 사람이 없었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 사람이다.

마찬가지, 역사 속에서 성경 신자들의 정신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공식적으로 영국에서 침례교회라
는 간판을 달고 지속해 나간 것은 1611년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천주교나 개신교에 속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침례교인들의 역할

제임스 왕 당시인 1620년, 필그림 파더스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어떻게?

분리주의자들의 일부, 종교적 박해로 1608년에 네덜란드로 도피함

윌리엄 브래드포드(1590-1657), 신대륙 이주 결심

영국 왕의 허락을 얻어 1620년 9월 6일 102명이 출항함(41명의 분리주의자들, 다른 61명)
11월 9일 북미 연안에 도착함, 메이플라워어 서약(영국 왕에게 충성을 보인다)

12월 21일 매사추세츠 플리마우스룩에 상륙함

1630년 영국의 변호사 존 윈스롭(John Winthrop)은 매사추세츠 세일럼으로 대략 1,000명의 청교도
들을 이끌고 갔다.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는 번창하였다. 1640년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베이(만) 식민지에는 대략
10,000명의 정착자가 있었다.

(*) 13개 오리지널 식민지 지도

뉴잉글랜드: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만,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4)

중부 식민지: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4)

남부 식민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5)

식민지에 회중 교회 설립

청교도들은 새 대륙에서 미국 회중 교회(조합 교회)를 만든다.

이들은 유럽 국가 교회들의 경직된 위계 구조에 강력히 반발하여 민주적 회중 정치를 채택했다. 각 지역의
회중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했다. 매사추세츠 만의 청교도들은 장로교의 노회나 성공회 교구
제도처럼 중앙집권 구조 대신 “고도로 분권화되고 중앙의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회중교회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회중이 칼빈주의 신학을 그 회중에게 적합한 모습으로 고칠 수 있도록
허락했고 실제로 이 회중들은 그 신학을 그렇게 고쳤다.”

위키 백과: 이들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었으며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를 미국에 만들고자 주력하였다.

즉 이들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함

다른 신앙은 허용하지 않음, 핍박, 매질 등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망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는 허락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는 핍박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함, 아직도 신정 정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함

로저 윌리엄스의 등장: 종교의 자유 창시자, 전도자

순수한 분리파 교회의 유력한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로저 윌리엄스 Roger Williams(1603-1684)는 원래 청교도 목사, 1631년 보스턴에 도착함

(*) 그는 1638년에 칙례를 받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칙례교회를 세움(재침례)

그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가 변절자이며,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든 이 교회와 어떤 종류의 사귄다고 갖는 것은 중대한 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라면 변절한 교회 및 세속 국가와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의무라고 주장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주의 회중 교회는 교회가 국가 속으로, 국가가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철저히 몰두했다. 급격한 신정 정치,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청교도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

아메리칸 토착민들의 도움으로 아내와 자신의 새로운 거주지인 프로비던스(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로 이주했으며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이곳이 바로 로드아일랜드 주, 거기서 그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자유를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들을 넘어 유대교와 다른 소수 종교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해 갔다.

(*) 양심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검을 돕기 위해 쇠로 된 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로드아일랜드 주, 정교분리, 신앙의 자유를 표방한 식민지를 개척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1644년에 정식 인가를 받아 스스로 최초의 로드아일랜드 주 총독이 되었다. 로드아일랜드 주는 각 종파에 대한 관용정책으로 종교적 피압박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 뒤로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 펜, 종교의 자유

그러나 영국이 장악한 전체 식민지 13개는 국가 교회, 신앙의 자유 불인정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회중교회(칼빈주의자들), 모두 신정 정치, 자기들 구역에서는 자기들의 교가 국교가 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자들 핍박

신대륙에서 거의 유일하게 칙례 교인들만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요구

1차 대각성 운동(1726-1770)

이러는 가운데 국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김, 사회적 불평등,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에 옴, 자식들 문제

자식들은 유아 세례만 받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음. 신대륙에서의 무한한 자유, 핍박이 없음, 세례 교인들의 숫자 감소, 중생의 체험이 없어도 이런 자들을 절반짜리 계약자들로 인정해서 세례를 주라 (Halfway Covenant), 중도 언약, 교회의 문제

1차 대각성 운동(1726-1770)

조나단 에드워즈, 회중 교회 목사의 아들, 매사추세츠 주 노스샘턴 교회 담임

이런 문제 직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 죄인들〉 설교

부흥사 조지 윌펠드의 등장

영향: 당시 미국 정착민 30만 명, 3만 명 회개, 교회 출석률 증가, 목회자 지원생 증가, 중생 강조

칙례 교회의 발전

대각성 운동의 문제는 장로교회와 회중 교회에서 발생함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유아 세례에 의한 회원권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교인들 이탈 현상

자연스럽게 중생 강조, 중생의 표시로 받는 침례를 받는 침례교회 선택

권위주의 탈피, 교회의 계급 질서 탈피, 모두 형제자매, 가정 방문, 주중 성경공부
이러는 와중에 식민지 사람들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요구

침례교인들 13개 주의 연합 강조(국가 교회 그만 두어라), 종교의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 주장
침례교인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침례교회가 널리 확산됨

현재 미국 인구의 15%, 침례교회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

로저 윌리엄스의 양심의 자유 사상, 침례 교인들을 통해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제퍼슨
등에게 영향을 크게 미침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서, 1783년 13개 주 독립 인정

미국 헌법

미국 독립 후 1781년에 제정된 13개 독립 주(州)의 연합규약 개정을 위하여 1787년 필라델피아에
소집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 제정한 헌법

본문 7조

미국은 헌법을 개정해서 바꾸지 않고 수정안을 부가적으로 만든다.

현재까지 27개의 수정 조항(Amendment), 수정 헌법이 아니라 수정 조항
특별히 1791년 수정 조항 1조부터 10조까지, 권리장전

(*) 수정 제 1 조(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필라델피아 독립 기념관 앞 사진

침례교회는 양심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정신으로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이 구상한 초기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제퍼슨, 분리의 벽

수정 조항 이후에도 당시 13개의 주 정부들은 각각 이미 특정 기독교 교단을 주 종교(state religion)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어느 하나의 기독교 교단을 국교로 정하는 것은 심각한
교단 간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고, 일부 주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었다. 당시 연방 정부가 국교를
정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지 이를 제한하거나 이슬람교나 불교 등의
다른 종교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었다.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3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의 일

1801년 코네티컷 주의 덴버리 침례교회 연합회가 편지를 보냄

당시 침례교인들은 코네티컷 주의 국가 교회인 회중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회중
교회를 위해 강제로 세금을 내야 했다. 국가 교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는 1802년 1월 1일 덴버리 침례교도들에게 보낸 편지(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에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분리의 벽을 쌓아야 함을 최초로 언급했다.

제퍼슨의 대답:

(*) 입법부가 1.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2.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 3.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A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 즉 전체 미국인들의 법령으로 정한
것을 나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 편지

여기에서 '정교 분리' 혹은 더 정확하게는 "교회와 국가 간의 분리 벽(a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서신의 맥락은 당시 코네티컷 주에서 소수 교단이었던 침례교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차별과 제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정부가 종교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교회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일을 통해 미국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이 생기고 이것이 미국 헌법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리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가 국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왜? 무려 1800년 동안 온 세상이 국가 교회의 압제 아래 고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의 자유는 카톨릭, 개신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 교회 교인들이 추구한 가치이다.

(*) 영어로는 soul liberty라고 말한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11).

우리의 영혼, 양심, 자유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국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는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도 속한다.

왜? 이들의 교회관이 잘못되었다. 구약 시대 교회 연장

인간관과 구원관이 잘못되었다.

특히 칼빈주의 5대강령은 국가 교회를 위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다음 시간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시작, 알미니안 주의 시작

칼빈주의 바로 알기 11
칼빈주의 5대 강령과 아르미니우스주의 5대 강령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칼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명백한 사실들: 역사를 통해 두 종류의 교회 운동, 자유 교회와 국가 교회

(*) 국가 교회: AD 313년의 기독교 공인, 정치와 종교의 혼합, 국가 교회 시작, 어거스틴 자유의지 박탈, 무천년주의, 전적타락(인간 자유 박탈), 무조건적인 예정 등 국가 교회 기초 확립, 루터와 칼빈 시대까지 국가 교회 이어져 내려옴.

종교개혁 당시 모든 나라가 국가 교회 시행,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없음

자유 교회: 국가 교회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신약 성경에 있는 지역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되었다.

국가 교회를 주장하고 옹호하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들은 사람들

국가와 교회의 분리, 유아 세례 반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 여러 종류의 이름

루터, 칼빈, 츠빙글리의 시대에는 재침례교도들(메노나이트와 침례교도), 귀 뒤로 침례교인들이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약 교회

국가 교회(천주교, 칼빈, 츠빙글리)가 빼앗으려 했던 것이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주에서 회중 교회 형성, 여전히 신정 저지 국가 교회 1638년 로저 윌리엄스 최초의 침례교회, 침례교인들 투쟁, 드디어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조, 토머스 제퍼슨 덴버리 침례교회에 보내는 편지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A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 State)을 세워야 한다. 즉 국가가 국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한 종교의 자유

오늘 < >,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칼빈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국가 교회의자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르미니우스 주의 추종자 등 처형, 박해하는 과정, 그러나 하나님은 칼빈주의 교회가 아니라 아르미니우스 주의 교회를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킴

네덜란드의 상황

칼빈(1509-1564),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함

칼빈주의 5대 강령: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 네덜란드의 도르트 종교 회의에서 만들어짐
 도르트 회의는 국가가 요청한 회의이다. 즉 국가 교회를 하던 네덜란드 정부가 종교 회의를 개최하여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이다. AD 313년 콘스탄틴 이후 국가의 수장 혹은 정부의 대표가 공회라는 종교 회의를 개최하여 교리를 정하고 신조를 정하는 이상한 행태가 국가 교회 안에 존재하였고 이와 동일한 일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네덜란드는 개혁 교회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개신교 국가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1581년에 국가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

네덜란드 신앙 투쟁의 역사는 국가 독립 투쟁의 역사

당시 세상, (*) 스페인 지배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스페인의 종교인 천주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엄청난 핍박

당시 네덜란드: 의미: (*) 라인강 하구에 있던 저지대 지역, 17개 지방을 한 군주가 통치함

(*) 지금의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북쪽은 화란족, 폴란드어, 중앙은 플레밍족 플래미쉬어, 남쪽은 왈룬족 프랑스어

지리, 문화의 차이: 교회와 시민 관할권이 다름

당시 군주는 카를 5세: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를 다스리는 신성로마제국

카를 5세: 아버지로부터 네덜란드, 어머니로부터 스페인을 상속받음

카를 5세는 네덜란드를 하나의 주권국으로 통일시킴

가장 큰 문제: 인종과 언어 17개 지방, 교회 관할권(어떤 교구 독일 지역 관할, 어떤 교구 룩셈부르크 관할)

카를 5세: 1521년 보름스에서 루터를 만남,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 반대, 재침례교도들 반대 선언
17개 지방에 종교 재판소 설치, 종교 생활과 관련해서 1524-1550년까지 수많은 금지 규정 발표(금지 서적 지정 등), 이것들은 모두 루터파와 재침례교도들 탄압 조치, 헤이그, 암스테르담 등에서 화형 등 악랄한 일 진행, “카톨릭을 믿어라.”

카를 5세 이후 그의 아들 필립 1555년 스페인과 네덜란드 상속, 그는 우둔한 사람, 1589년에 스페인으로 이주한 뒤 다시 돌아오지 않음, 자기의 이복 여동생 마가렛을 섭정으로 세우고 스페인 군대를 주둔시킴, 종교 재판소를 늘림

이때 오렌지의 윌리엄 공이 등장함, 네덜란드 전역에서 전쟁, 스페인의 침략
드디어 1581년 7월 26일, 오렌지 공 새로운 개신교 국가 세움

나라가 두 쪽으로 분리됨: 북쪽의 7지방은 칼빈주의자들의 개신교 국가(네덜란드), 남쪽 10지방은 카톨릭 국가(벨기에)

왜 네덜란드는 칼빈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1581년 네덜란드 국가 설립, 종교 개혁 당시 국가 교회 시대, 모든 나라가 국교를 정해야만 한다.

1. 네덜란드의 국민감정: 스페인은 절대 안 된다. 스페인의 카톨릭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개신교가 선택지, 루터파나 칼빈파나? 여전히 국가 교회

재침례교회 같은 국교 불인정 교회는 안 됨

루터교는 근접한 독일 국교, 독일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

2. 당시 칼빈주의자들, 용병을 끌어들이더라도 국가를 구하려 함, 종전 이후 경제 회복에 앞장섬, 칼빈의 제네바 독재와는 달리 장로회주의에 의한 대표자 중심의 위임 정치

3. 그래서 네덜란드는 당회라는 교회 법원이 모든 회중을 다스리는 장로회주의 선택

1561년 벨직(벨기에) 신앙고백

여하튼 네덜란드는 1578년에 장로교를 국교로 정하기도 하였다. 여하튼 장로교를 좋아하는 국가

4. 국가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장로교 국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개혁 교회 신학자들 사이에 분란이 생김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라틴어 개명, 1560-1609)

(*) 나무 위키, 칼빈 사망(1564) 4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출생함

(*)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는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신학자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창시자이다.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 네덜란드 아우데바터르(Oudewater)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의 홀어머니는 어린 아르미니우스를 개종한 가톨릭 신부 에밀리우스 양자로 맡겼고, 그 신부가 죽은 후에는 마르부르크의 한 교수가 그를 루터파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우데바터르를 점령했다. 그곳 주민들이 가톨릭 신앙으로 복귀하기를 거부하자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는데 그중에는 아르미니우스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협성이 준 상처는 그가 후에 종교적 편협성에 반항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로테르담의 개혁교회 목사 베르치우스(Petrus Bertius)의 집에 머무르고 베르치우스 목사는 그를 레이던 대학교로 보냈다. 이 대학교는 1575년 오렌지 공 윌리엄이 설립하였다. 여기서 아르미니우스는 학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암스테르담 교회의 후원자들로부터 목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네바 대학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곳에서 아르미니우스는 칼뱅주의 주창자인 베자(Théodore de Bèze)와 다른 스승들로부터 신학을 배웠다. 그는 이때에 극단적인 칼뱅주의의 입장을 잘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는 제네바 교육을 받은 뒤에 암스테르담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그는 훌륭한 설교가이자 천부적인 성경

주석가였으며 또한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특히 강해 설교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1589년 즉 개신교 국가가 된 지 8년 뒤에 당시 학식 있는 성도(목사가 아님)인 디릭 코른헤르트(Dirck Coornhert, 1522-1590)가 베자의 신적 작정(이중예정론) 이론을 논박하는 학술과 강연을 하고 저서를 발행했는데 이는 신학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 이중 예정

코른헤르트는 법률가였고 합리주의적 인물로 이중예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코른헤르트는 베자가 말한 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시라면 하나님은 바로 죄의 창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해 논의했다. 코른헤르트가 매우 뛰어나게 그 논의를 이끌어가자 칼빈주의의 전체 체제와 정치적 안정성 자체가 침해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정부 내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개혁파 사람들은 신학적 견해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찾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바에서 돌아온 젊은 신학자 알미니우스가 적합해 보였는지 그에게 코른헤르트를 반박하는 글을 써 주도록 부탁했다.

아르미니우스는 우선 성경 자체,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예정에 관한 진지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교리의 중심지가 되는 로마서 9장에 관심을 집중했다. 로마서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할수록 아르미니우스는 바울이 실제로 가르친 것은 베자가 주장한 예정론을 논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개인 구원은 항상 신적 작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놓여 있었다. 즉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든 데 있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데 있지 않다.

그럼에도 아르미니우스는 예정에 대한 자신의 믿음(칼빈주의 믿음)을 단념하지 않고 다른 시야에서 성경적인 예정을 보았다. 그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책을 읽고 학문적으로 검토를 하여 어떤 훌륭한 교부도 베자의 견해를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과 칼빈의 이중 특별 예정은 공식적으로 교회에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어거스틴도 펠라기우스의 논쟁 전에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러한 연구 결과로 인해 코른헤르트의 주장을 이단이라고 논박할 수 없었다. 그는 이후 로마서를 강해할 때에 타락 전 예정설에 강조를 두지 않고 로마서의 참되고 풍성한 의미를 강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위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앙 신조가 아닌 성경이 단 하나의 정통적인 근거가 되기를 원했다.

아르미니우스는 신적 작정(이중 예정)에 관한 타락 전 예정설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했다.

1. 이중 예정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2. 과거 1500년간, 그것은 책임 있는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지도 않았었고 전체 교회에 의해 수용되지도 않았었다.
3. 그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든다.
4.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사람에 관해 무조건 선택에 의거한 작정을 만든다.

“만약 베자와 고마루스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원인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곧 죄의 창시자이다.”

아르미니우스는 타락 전 예정설이 결코 이런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비난하는 데 전력하였다.

아르미니우스는 자기의 성경 강해에 대한 입장을 변호할 기회가 공적으로 주어질 때마다 건전하고 차분한 학식으로 매번의 논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아무도 성경 해석을 기초로 하여 그를 논박할 수 없었다.

그는 생전에 자신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했으며 공식적인 공청회를 원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신학적으로 성숙한 후에 그는 레이던 대학교의 신학교수가 되었고 거기서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의 극단적 칼빈주의(Hyper Calvinism)와 부딪쳤다. 신약 교수인 고마루스는 아르미니우스에게 성경적 권위에 근거해서 도전했고 아르미니우스는 자신의 성경적 해석을 교회의 신조들에 종속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아르미니우스는 기독교의 권위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사실 당시 네덜란드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르미니우스가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여기며 설교하는 데에 불만을 품었다. 그들은 칼빈주의적 신조를 실제적인 최종 권위로 만들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가 교회, 정권 유지

아르미니우스는 이러한 신학적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49세의 나이로 1609년에 세상을 떠났다.

예정에 대한 아르미니우스의 원리들

1. 예정 교리는 1차적으로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 점은 후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원리가 되었다.
2. 예정은 반드시 기독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며 원인이다.
3. 구원은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한다. 즉 사람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4.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이론은 다 비성경적이다.

아르미니우스 5대 강령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한 점: 그는 예정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함께 일하는 예지 예정을 주장하였다. 아르미니우스는 한 인간의 구원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기회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반대한 것이다.

(*) 칼빈주의 TULIP

(*) 아르미니우스 5대 강령

1. Natural Inability(자연적 무능력) :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남아 있다. 믿을 수 있다.
2. Conditional Election(조건적 선택) :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만 자기 백성으로 선택/예정하신다. 여기서 복음을 믿는 것이 선택의 조건이 된다.
3. Unlimited Atonement(보편 속죄)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4. Resistible Grace(거부할 수 있는 은총) :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은 이를 믿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지 않기로 거부할 수도 있다.
5. Perseverance of the Saints(성도의 견인) : 신자는 인내로써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를 붙드신다.

아르미니우스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은 유능한 학자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에피스코피우스(Simon Episcopis, 1583-1643)가 교수직을 계승하고 스승을 대신하여 고마루스와 논쟁을 계속했다. 고마루스는 라이덴 대학에서 아르미니우스 지지자들을 축출하려고 했다. 이 문제는 신학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교수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몰린 아르미니우스 지지자들은 당시 궁정 목사로 있던 위텐보가에르트(John Wtenbogaert, 1557-1644)와 문제 해결을 위해 상의했다.

위텐보가에르트는 아르미니우스 목사 46명의 서명을 받아 화란 의회에 ‘항론(Remonstrance)’을 제출했고 자신들의 지위를 보호해 줄 것을 홀란드 정부에 요구했다(1610년). 그래서 이들은 항의자들(Remonstrants)이라 불렸다. 항의: Remonstrance, Remonstrants

이들은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을 기초로 ‘항론 5개조’를 작성하여 네덜란드 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대한 공식표현인 벨직신앙고백서(Belgic Confession, 1561)와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Heidelberg Catechism, 1563)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에 대항하여 칼빈주의자들이 답한 것이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TULIP이라고 불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즉 (*) TULIP은 네덜란드 산이다

도르트 종교 회의(총회, Synod)

(*) 도르트(도르트레히트) 총회는 1618년 11월 13일에 시작이 된 뒤 7개월 동안 무려 154번의 회의를 계속한 후에 1619년 5월 9일에 끝났다. 회의의 공식적인 구성원들로는 102명의 네덜란드 정통 칼빈주의자들과 외국에서 온 27명의 칼빈주의 대표자들이 있었다. 회의를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의 여러 나라 교회에 대표 파송을 요청했다. 잉글랜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의 모든 개혁신교회 대표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프랑스 교회는 당시 로마 가톨릭적인 정부 때문에 대표단을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회의는 라틴어로 진행했다.

참석한 102명의 대표자들 가운데 18명은 칼빈주의 정부가 임명한 위원이었고 아르미니우스파 대표의 참석은 처음부터 봉쇄되었다. 13명의 아르미니우스파 대표는 회의가 시작된 지 여러 주일 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소환되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받았다. 의장이나 서기 등 모두 엄격한 칼빈주의자로 모든 결의는 일방적이었다. 교회 사가(史家) 필립 샤프의 말대로 “그리하여 아르미니우스파의 운명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회의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의하여 예정된 칼빈주의 예정론의 예정대로 된 승리였다. 6개월간이나 계속된 종교회의는 154번의 회의를 거치며 만장일치로 칼빈주의의 5대 강령 교리를 공식적인 칼빈주의의 입장으로 선포하였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단으로 선포하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여기에서 이단으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사상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도르트 회의가 끝난 후 관용파의 지도자인 올덴바네펠트(Johan van Oldenbarnevelt, 1547-1619,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지지한 정치가)는 1619년 5월 참수형에 처해졌고, 도르트 신경에 서명을 거부한 100여명의 목사들은 아르미니우스로 간주되어 국외로 추방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아르미니우스에게 종교적 관용이 주어진 때는 1625년 이후였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된 칼빈주의는 극단적 칼빈주의(Hyper Calvinism) 5대 강령이다. 약 100년 이후에 태어난 웨슬리는(1703-1791) 이러한 극단적 칼빈주의를 비판하여 이중예정론을 거부했다. 아르미니안의 추종자 일부는 펠라기우스 주의(Pelagian rationalism)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자유 의지만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인간을 고양하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신학적 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인간이 죄로 묶여 있고 그래서 구세주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육과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함으로 인간을 곤경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복음적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항의자들(Remonstrants)의 5가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영접해야 할 개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와 펠라기우스 주의는 원천적으로 다른 것이다.

존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우리 곧 복음적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원죄를 인정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가르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자들도 영원한 믿음의 파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정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믿는다.

근본적으로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의 도덕 무용론, 율법폐기론(Antinomian)적 경향에 대한 윤리적 반동이었다. 만약 인간들의 운명이 모든 면이 예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거룩함(성결)에 대한 윤리적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관련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위 강조 이러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영향을 받거나 지지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인물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와 그의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있으며, 미국의 복음전도자 D.L 무디와 빌리 그레이엄을 들 수 있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교회(순복음)는 웨슬리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파이다.

오해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국내의 보수적인 교단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곤 한다. 사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칼빈주의 신학을 반대하는 신학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행위(구원 유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이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는 발판이 되기도 하기에 보수주의자들은 간혹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곧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일반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그저 칼빈주의 신학과 같지 않은 견해이고 신앙생활에 사람의 행실과 노력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길 뿐이고(구원 유지) 자유주의 신학과 같이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신학이 아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 신학은 행위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길 뿐 믿음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르미니우스주의 = 자유주의라는 인식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지지하는 교단들은 전부 진보적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성결교의 예성교단 등은 보수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칼빈주의를 지지한다 해서 무조건 보수인 것도 아니다. 국내 장로교단 중 심히 자유주의 성향을 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있다. 또한 성공회도 꽤나 진보적인 교단이며 천주교와 비슷한 분위기도 있는 교단이지만 성향은 온건한 칼빈주의 성향이다.

칼빈주의자가 아니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인가?

신광은 목사, (*)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이 지금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지속되어 온 이유는 두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 모두가 둘 중 하나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칼뱅주의 아니면 아르미니우스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1. 광대한 기독교 신앙을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단 둘로 압축하려는 것은 무모한 시도이다. 그러한 이분법적 태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양분하려는 자기중심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태도의 극단을 1이라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강조하는 태도의 극단을 10이라고 해 보자. 이런 스펙트럼에서 1은 이슬람 속명론쯤 될 것이고, 10은 무신론적 인본주의쯤 될 것이다. 내가 볼 때 칼뱅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스펙트럼에서 2~9 사이 어디쯤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 기독교 신앙의 범주 내에서 위의 스펙트럼을 다시 짜 보자. 그렇다면 1은 하이퍼칼뱅주의쯤 될 것이고, 10은 펠라기우스주의쯤 될 것이다. 이 스펙트럼 상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마도 2부터 9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인데, 필자 생각에 요한 웨슬리 같은 복음적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대충 3~4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다.

성경적 입장

(*)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첫 번째 4개 강령은 성경적이다.

다섯 번째는 성도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확신을 비교해 보면 '조삼모사'다. 왜냐하면 칼뱅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당신이 택자인지 비택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당신이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 다 안심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닌 것이다.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역사성

어거스틴 전까지는 100% 아르미니안 주의

어거스틴 이후부터 칼빈까지는 100% 칼빈주의, 어거스틴 주의

칼빈 사후, 아르미니우스 논쟁, 많은 사람들 희생되고 팍박 당함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시대정신: 개인 인권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개인이 자신의 운명과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율적 인간관, 평등주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출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정신이 점차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근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대다수 종교 개혁 이후 다양한 교파,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오순절 등 전 세계 기독교회의 다수가 아르미니우스 주의

왜?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 설교, 선교 등 불필요

웨슬리의 주장,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금도 대다수 장로교 목사들, 교육은 칼빈주의,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만인구원설

결론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국가 혹은 국가 교회가 강제로 정한 교리이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국가 교회가 아니다.

그 결과: 아르미니우스 추종자들 처형, 추방

양심의 자유 박탈

그러나 하나님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성경에 훨씬 더 가까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통해 세사에 복음을 선포하심

우리는 칼빈주의자도 아니다. 왜 5개가 다 성경과 다르므로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도 아니다. 4개는 옳고 1개는 틀리므로

칼빈, 도르트 회의 등의 국가 교회, 양심의 자유 부정

이런 짓은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가 아니다.

다음 시간 칼빈의 가르침이 요약된 제네바 바이블과 개혁 신학의 문제

칼빈주의 바로 알기 12
칼빈주의 제네바 성경(무천년주의)
개혁주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문제점

지금까지 11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칼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교회사 공부, 국가 교회, 자유 교회,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주의 이들은 국가 교회, 전체주의 독재로 도시와 국가를 다스림, 영혼의 자유 부인,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 복종하게 함,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의 오류 칼빈의 이런 사상들을 추종하는 신학, 개혁신학, 언약 신학 현대 이것을 조장하는 성경이 제네바 스터디 성경, 오늘 < >, 미들타운바이블 교회의 조지 젤러의 글(*) 개혁신학자들은 종종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 예를 들어 R.C. 스프로울이 편집한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The Reformation Study Bible, 1998)을 보자. (*) 이전에는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한글 판(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 새 제네바 스터디 성경(1995년 토마스 벨슨), NKJV, 편집자 대표, R.C. 스프로울, 다른 편집자들 (James Boice, Edmund Clowney, Roger Nicole, J. I. Packer and Bruce Waltke), 모두 이스라엘 대체 신학, 열렬한 칼빈주의자들

소개의 글: 이 성경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온 신학적 유산을 보여 준다. 이 성경의 주석들은 종교 개혁 당시의 진리를 현대어로 다시 진술한 것이다. 신학적 노트의 다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인용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1917년에 나온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함, 그리고 이것을 능가하는 스터디 성경을 내서 개혁주의 신학을 펴뜨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이것은 개혁주의 시각에서 기록된 첫 번째 스터디 성경이다. 스프로울은 50여 명의 개혁주의 학자들을 모아 이 일을 진행하였다. 1560년에 나온 제네바 성경 출간 이후 일관성 있게 처음 만들어진 개혁 신학 스터디 성경, 세대주의의 스코필드 성경에 필적하는 개혁주의의 새 제네바 성경

1998년,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 스터디 노트는 이전과 동일하다. 2005년에는 ESV 역본으로 출간됨 그러나 주석은 거의 동일함

종교개혁(개혁주의) 스터디 성경 도입부

“종교개혁 스터디 성경의 주석과 신학 노트에는 종교 개혁의 진리를 현대적으로 다시 진술한 부분들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종교개혁의 빛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돌아가 교리들과 신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들이 말하는 빛은 종교개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다. 시119:130

개혁자들은 여러 면에서 조명을 받았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빛은 성경에서 온 것이다.

여러 면에서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종교 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우리 중 아무도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자유가 없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개혁자들의 글과 교훈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시험해야 한다. 즉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말이라고 해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더욱이 450년 전의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행17:11-12

우리는 개혁자들이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랐으므로 좋은 점들에서는 그들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점들에서는 우리가 그분들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왜? 그런 부분들에서 개혁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네바 성경: 제네바 성경은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으로 1560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대표 편집자는 윌리엄 위팅엄(William Whittingham, 1524-1579)이다. 위팅엄은 영국 청교도(English Puritan)로 1533년 메리 여왕 박해 시절에 대륙으로 피신했고 장로교 신봉자였다. 위팅엄은 1555년 존 나스와 함께 제네바로 건너가 칼빈 등과 같이 활동하였고 1559년 영국인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존 나스의 뒤를 이어 목사로 사역했다.

제네바 성경은 성경 여백에 제네바의 성경 교사였던 칼빈의 사상을 담은 주석들을 많이 담고 있다. 즉 제네바 성경은 장로교 교리 혹은 체계에 입각해서 번역되고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로교 편향 주석 및 용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젤리의 말: 종교개혁 제네바 성경 주석 노트들을 만든 분들은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주석의 다수는 크리스천 삶에서 유용하다.

오늘 분석에서 나는 이들과 다른 부분들만 다루려 한다.

다른 부분들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칼빈 등의 주장에 따라 영해하는가? 이 차이가 개혁 신학(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차이이다.

어린아이의 중생(Infant Regeration)

1664쪽 중생 항목 : 아기들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비록 아이들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처럼 보논에 드러나게 이지는 않지만, 스프로울에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달라고 편지를 씀. 2000년 6월 1일 스프로울의 비서가 편지를 보냄

뉴 제네바 스터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노트에서 아기들의 중생에 대해 언급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들 속에서 이루시는 일 즉 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이 일은 아기들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프로테스탄트들의 믿음은 믿기 전에 중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기를 먼저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많은 경우 중생과 그것으로 인한 믿음은 보기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중생이 믿음 이전에 있다. 아기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아기가 중생하도록 만든 뒤 몇 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 아기도 중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는 시22:9-10와 눅1:15이다.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기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 뒤 몇 년이 지난 뒤에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기 믿지 않는데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침례 혹은 세례(Baptism)

이들은 침례(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고 가르친다(1557쪽). "신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침례를 주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다.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은 물에 담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어 뱁티조는 이런 식으로 만족될 수 있다(p.1776).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뱁티조라는 그리스말은 물속에 담근다는 뜻이지 뿌린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붓거나 뿌리는 것은 죽어서 매장하는 것의 그림이 될 수 없다(롬6:4). 누군가를 매장할 때 당신은 먼지를 머리에 뿌리지 않는다. 그들은 세례가 언약 공동체로 이끄는 입교 예식이라고 말한다(note under Genesis 17:12). "세례와 주의 만찬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에 해당하고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들이며 규례들의 언약이다(p.30, 584쪽).

개혁주의 신학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아이의 할례와 세례를 잘못 연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아 세례라는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친다.

유아 세례(Infant Baptism)

제네바 성경은 유아 세례를 조장한다. "믿는 성도들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대다수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한 일이다. 역사적인 개혁신학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른들만 믿음의 고백 뒤에 침례를 받는 것이 유효한 침례라는 주장을 반대하고 성도들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제되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 유아 세례는 신약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도 않다. 성도들의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기 위한 성경적 근거는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가 은혜의 언약에 대한 징표요, 봉인이라는 데 놓여 있다. 성도들의 아기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 사내아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구약 성경의 사례가 이것을 요구한다((p. 38). 그들은 또한 집안 식구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는 것은 유아 세례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p.38). 그러나 행16:31-34은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므로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v.34).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간수의 집안사람들은 다 어른들이다. 아기들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침례는 항상 어른들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행8:38, 39,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왕국(The Kingdom)

이사야서 11:6-9, 호2:18, 들짐승의 위협이 없는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발견하는 평안과 안전과 사랑의 상태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네바 성경 창 1:29-30 노트는 짐승들은 원래 초식이었다고 말한다. 왜 창1장의 짐승들은 있는 그대로 짐승들이고 사11장의 짐승들은 비유적인 짐승인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칼빈의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데 짐승은 다 있는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사는 짐승들이다.

계시록(The Book of Revelation)

계시록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대다수 학자들은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p. 2004). 만일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대로 A.D. 95년이 맞다면 이것은 개혁 신학의 언약주의 신학에 큰 치명타가 된다. 개혁신학 주장자들은 AD 70년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R. C. 스프로울 역시 과거주의자이다. 그런데 95년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70년에 다 성취가 되는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율법과 성도(The Law and the Believer)

"성도들은 노예 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다 (p. 1856). "성도들은 노예 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율법 아래 있고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p. 259).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형적인 가르침이다. 그들의 주장: 칭의 면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칭의 이후 성화 면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된다, 로드십 살베이션

창조의 날들(The Days of Creation)

새 제네바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창조 날에 대해 4가지 견해를 제시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 연속 6일, 젊은 지구, 다른 분들, 날은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날 시대 이론, 다른 분들은 이 날들은 24시간 하루, 그러나 날과 날 사이에는 긴 기간이 있다. 어떤 분들, 날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이야기, 사람도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것 보여 줌. 이런 이론에서는 유한한 사람이 이런 날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편집자들은 이런 형태의 날들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see note under Genesis 1:5, p.7). 이들의 주장 요약: 하나님이 기록한 창세기 1장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다. Scofield Bible and New Scofield Bible이 재창조 이론을 주장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갱 이론을 믿지 않는다. 최근의 창조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창세기 1장의 6일은 24시간 하루, 연속 6일,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안식일과 주일(The Sabbath and the Lord's Day)

"새로운 언약 하에서 안식일은 새롭게 되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주의 첫 날 예배를 드렸고 이것은 크리스천 안식일로 여겨졌다(p. 584). 성경 어디에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말하는가? 바울은 계속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한다(행

13:27). 왜 그는 일곱째 날이 첫째 날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가 역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행13:14; 13:42; 16:13; 17:2; 18:4)? 왜 그는 바뀐 것을 모르는가?
이유: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주일은 주일, 안식일은 안식일, 구약과 신약을 혼동하면 안 된다.

교회(The Church)

"교회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속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갈6:16). See page 1864.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다(note under Gal. 6:16). 그러나 바로 이 노트 밑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심히 염려하고 있다(p.1858).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see note under Rom. 11:26). 1638쪽,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리이다. (이것은 교회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찾아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거나 그 안에 남아 있는 믿는 자 전체를 말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거나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16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한다.

Vicarious Law Keeping

The note under Romans 3:24 teaches that justification is grounded not only in Christ's death on the cross where He bore the penalty of God's judgment against us but also "it is grounded in Christ's lifelong obedience in which He fulfilled the precepts of God's law for us." "In His active obedience, Christ fulfilled the positive commandments of God on behalf of His people. This positive righteousness is granted as a gift through faith to believers" (p.1670 and see also the note on p.1718). This idea of "vicarious law-keeping" is not in line with the teaching of the epistles. I would recommend the discussion of this point in William Newell's commentary on ROMANS (see pages 190-193). This is an important point that is missed by many believers. For a full discussion of this important issue, see Vicarious Law-Keeping (Christ's Active Righteousness).

언약 신학(Covenant Theology)

이것은 30, 584쪽에 장황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 성경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라.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 안에서 명확하게 보인다고 가르친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 그런데 왜 개혁 신학 하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언약들에 근거하여 자기들의 이론을 펴는가?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다(Regeneration Precedes Faith)

"중생의 열매가 믿음이다. 중생은 믿음보다 앞선다(p. 1664).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의지가 자유롭게 될 때 비로소 죄인은 과거의 생활 형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다(p. 1904). 이것은 심각한 교리 문제이다. 그들은 사람이 믿기 전에 먼저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한다(요20:31; 3:16; 1:12; etc.). 사람이 먼저 구원받은 뒤(생명을 받은 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Is Faith the "GIFT OF GOD" in Ephesians 2:8?

The NGSBs는 엡2:8에서 이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범죄 행위이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기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 혹은 구원받은 것이다.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

The NGSB는 1682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가르친다. 편집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see note under 2 Peter 2:1).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고 대속하신다고 가르친다(see p. 2040). 그래서 딤편전2:1,4,6,의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이 된다. 즉 하나님은 한 부류의 사람들만 선택하지 않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한다(p. 1909). John 3:16의 세상 역시 온 세상의 선택받은 자들을 뜻한다.

유기(Reprobation)

The NGSB는 무조건적인 선택 구원, 무조건적인 선택 유기를 가르친다 (p. 1487). "유기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p. 1784). In response to this, the note by C. H. Mackintosh is appropriate:

It is deeply interesting to mark the way in which Scripture guards against the repulsive doctrine of reprobation. Look, for example, at Matthew 25:34. Here, the King, in addressing those on His right hand, says, "Come, y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ontrast with this the address to those on His left hand (v.41): 'Depart from Me ye cursed [He does not say 'of My Father'] into everlasting fire, prepared [not for you, but]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So also, in Romans 9. In speaking of the "vessels of wrath," it says "fitted to destruction"--fitted not by God surely, but by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when speaking of the "vessels of mercy," it says, "which He had afore prepared unto glory." The grand truth of election is fully established; the repulsive error of reprobation, sedulously avoided (The Mackintosh Treasury, p. 606 footnote).

We find the same in 2 Thessalonians where election is taught in chapter 2, verse 13, but it does not say, "God hath from the beginning chosen some to damnation." No, the reason men are damned is clearly spelled out in 2 Thessalonians 2:10-12 (they are damned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love of the truth and they did not believe the truth that they might be saved). In summary, those that go to heaven have only God to thank; those who go to hell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For a balanced view of what the Bible teaches regarding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see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전적 타락 무능력Inability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일 믿거니 말씀에 믿을 능력이 없다(p. 809). 행16:31.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방언과 대언의 선물(The Gift of Tongues and Prophecy)

고전13:8 노트: 방언과 대언의 선물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능을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순절

은사주의의 주장이 맞는다. 방언과 대언은 지금 불필요하다. 그쳤다.

Practical Sanctification

A lengthy article on sanctification is found on page 1806. In this article nothing is said of the believer's positional sanctification in Christ and also nothing is said about the believer's death to sin, which according to Romans 6 is one of the foundational truths of sanctification. These same omissions are found in the section on "sanctification"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See our studies entitled What is The Believers Rule of Life? , The Christian Life and How to Live It and Jay Adams' Teaching on Sanctification.

왕국(The Kingdom)

"축복의 황금시대 즉 왕국 시대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건설된 우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살게 될 것이다. 왕국은 지금 우리 시대에 시작이 되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즉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충만하게 펼쳐질 것이다.(p. 1638).“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왕국은 이런 영적인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 침례자 요한 모두 메시아 왕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을 말하였다.

휴거(The Rapture)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체여 올라가고(두 번째 오심) 그 뒤에 세 번째 땅으로 내려와 자신을 보이실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 편집자들은 영원한 세상이 오기 전에 휴거와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고 부활과 심판도 동일한 때에 이루어지라라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재림(The Second Coming)

The NGSB는 휴거와 재림이 한 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pages 1898-1899).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구분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리이다. 존 맥아더 목사 등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최종 심판The Final Judgment

The Reformation Study Bible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 한 번의 일반적인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p. 1898).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p. 1549).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휴거 때, 신약시대 의인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1000년 왕국 이후, 크고 흰 양좌 심판(계20:11-15)

이들은 천년왕국을 고의로 무시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도 무시하고 부활은 한 번에 일어난다고 한다.

맥아더, 불테마 등의 개혁주의 목사들 이런 것 다 반대함

천년왕국(The Millennium)

The NGSB은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한다. 2005쪽을 보면 천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전체 기간을 뜻한다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

의 기간이 천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 말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시대라고 왕국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다. 그들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결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p. 2004 and see note under Col. 2:15).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된 상태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라.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자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면 그는 언제 석방되는가?(계20:7-9), The NGSB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천년왕국 성전(The Millennial Temple)

"겔40-48장의 에스겔 성전 설명은 설계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의 필요성과 순수성을 보여 주는 환상이다. 그것은 땅에서 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p. 1315).

성경 신자들의 특징: 평범한 의미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 겔40-48을 읽어보라. 다른 의미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실제 치수이다. 제사장, 짐승 희생, 성전동쪽에서 물이 나가고 사막이 고쳐지고 사해에 물고기가 산다. 개혁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영해한다. 계11:3의 두 증인, 새 제네바 성경, 이들은 교회들을 나타낸다. 개인들이 아니다. 어떻게 교회가 굶은 배움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할 수 있는가? (계11:3), 어떻게 교회가 죽은 몸으로 묘사되는가?(v.9)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욱이면 안 된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결론

이들의 주장;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주의

휴거는 없다. 계시록은 70년경에 다 성취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네로 등의 로마 황제이다.

전적타락, 무능력, 자유 의지 박탈, 중생 먼저

제한 속죄

이중 예정, 이런 것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한 마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국가 교회를 위한 어거스틴 시스템, 칼빈이 가져다가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자들은 신약 교회를 전혀 모른다, 국가 교회,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 이스라엘론 등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이나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만든 인간 교리 시스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들이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3
칼빈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로마서 9-11장 바르게 이해하기

롬10:1-4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칼빈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교회사 공부, 국가 교회, 자유 교회,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주의 이들은 국가 교회, 전체주의 독재로 도시와 국가를 다스림, 영혼의 자유 부인, 강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민들 복종하게 함, 교회론, 인간론, 하나님론의 오류 칼빈의 이런 사상들을 추종하는 신학, 개혁신학, 언약 신학 스프로울 등 50여 명의 학자들이 만든 종교개혁 개혁신학 새 제네바 성경의 여러 가지 오류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2중 예정

이것들을 지지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늘 로마서 9장을 사용한다. 애용한다.

성경의 어떤 구절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보고 거기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로마서는 16장: 1-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였다.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의 상태, 모두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다른 구원방법 없다. 그 뒤 성화, 영화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려진 상태인가를 살펴봤다.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봤다.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다.

사람의 상태(1-3), 구원/칭의(4-5), 성화(6-8), 영화(8)

구원의 전 과정을 풀어 쓰면 8장 29-3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한 예정, 부르심, 의롭다 인정하심, 영화롭게 하심, 마지막으로 31-39절,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12-16장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준다. 특별히 성도의 성화, 날과 달과 음식 문제 등

오늘 살펴보는 9-11장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말씀들, 9-11장이 없이 8장 다음에 곧바로 12장이 나와도 아무 문제없다. 어쩌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9-11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유대인들 문제,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약속, 어떻게 되는가?

롬9-11의 주제: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장로교회 등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 9-11장이 이상한 해석 롬9:1-3은 바울의 큰 슬픔을 보여 주고 롬11:33-36은 하나님께 대한 큰 찬양을 보여 준다.

롬9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롬10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롬11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 준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1.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신7:6-9; 롬11:28).
2. 하나님은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 하에서 영화로운 왕국을 누릴 것을 약속하였다(단7:13-14; 사2:1-5; 9:6-7; 11:1-9; 렘31:31-37; 33:14-16; 눅1:31-33).
3.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배척하였다(요1:11; 마23:37-39).
4.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멤버는 모두 유대인이었다(행2).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행10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유대인은 줄어들고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다. 지금 현재(2021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무신론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생각해 볼 문제점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2.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3.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로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4.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는가? 그러면 1948년 5월은 무엇인가?
5. 이스라엘(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 있는가?

당신이 1세기의 유대인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들을 생각해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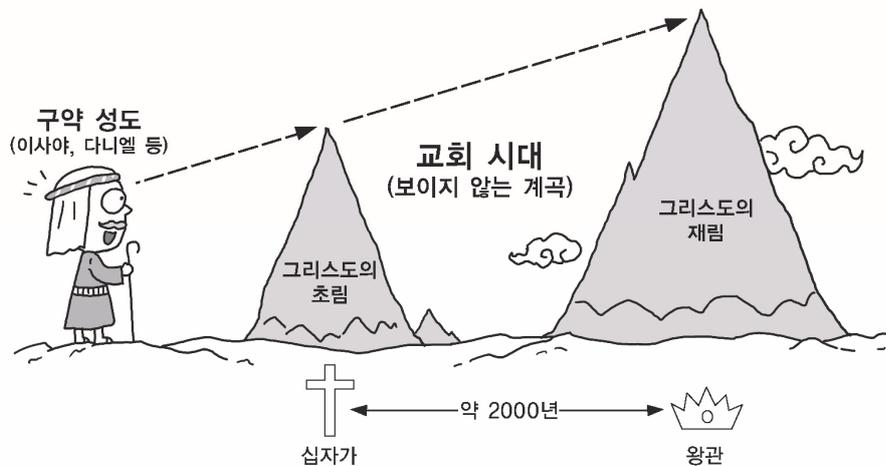
1. 바울의 복음은 참인가? 거짓인가? 즉 그가 전한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 a. 거짓이다: 이 경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아직 왕국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 b. 참이다: 이 경우 왜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하는가? 구약의 약속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후자가 맞는다.
2. 롬9-11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준다.

만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답을 주고 있다.

카톨릭/장로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못함

어떤 이들은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스린다고 주장한다(영해). 무천년주의 이런 주장들로써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할 수 없다. 롬9-11이 해답을 준다.

1. 현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롬10:9-13; 11:1-5).
2. 미래의 유대인들(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 계획이 이루어진다(롬11:25-28). 이스라엘이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롬11:28).
3. 현재의 교회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다.



- a. 사9:6-7, 6절은 초림, 7절은 재림, 교회 시대가 언급되지 않음
- b. 사61:1-2(눅4:18-19 비교), 초림과 재림, 예수님은 초림 부분만 읽으심
- c. 미5:2,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스리는 자여야 함. 전반부만 성취됨

- d. 속9:9-10, 초림과 재림
- e. 눅1:31-33, 초림과 재림
- 4. 구약 시대의 유대인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 5. 우리는 지금 교회의 계곡에 살고 있다(마16:18; 행15:14).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산봉우리를 잘 볼 수 있다.

로마서 9-11장의 문맥

- 9장 시작(1-4), 자기의 육적 형제들인 이스라엘로 인한 고통
- 30절 이후, 역시 이스라엘
- 10장 1절: 이스라엘
- 19-21절 이스라엘
- 11장 1절: 이스라엘
- 11장 25-31절
- 9-11장 전체가 이스라엘 이야기, 개인의 구원 주제가 아니다.

제임스 나스의 설명: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 개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전의 약속을 모두 폐기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깨지도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또 앞으로 다루게 되실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장에서 구절들을 읽고 해석할 때 이러한 문맥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즉 9-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원 문제는 1-8장에 나와 있다.

(*) 소제목 설명

가장 중요한 것: 11장 28절을 기억하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도 복음의 원수(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선택 받은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즉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1장의 문맥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받았으면서도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과 상속 재산과 축복을 받기로 선택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문맥을 잘 살펴본다면,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공격할 때 당신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11장 28절이 가장 확실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은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맺은 국가적/민족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9-11장 요약

바울은 9장에서 메시아를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예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권리에 대해 기록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여러 모로 큰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다 해도(즉 선민이라 해도) 모든 유대인들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과 여러 가지 다른 언약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권리를 유지해 오셨고 사용해 오셨다(파라오, 느부갓네살 등).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식(그것은 믿음으로만 된다)으로 여러 개인들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특권을 보여 주셨다(노아, 욥 등 구원).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자기들의 의를 구하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택된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자 그들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공회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조상의 덕에 힘입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 롬10:10-11,13

9-11장의 주제는 절대로 개인의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 대다수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다(무조건 선택을 말한다).

11장 불신을 통한 이스라엘의 넘어짐,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즉 7년 환난기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치 계획이다.

http://www.insearchoftruth.org/articles/romans_9.html

결론

롬9-11장은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한다.

왜 바울은 롬9-11장에서 불신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불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그러므로 불신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개개인의 구원 문제로 이해하면 안 된다.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이야기

바울이 9-11장에서 말하는 것들은 불신 유대인들의 특징:

미움을 받음. 공회를 얻지 못함. 강박하게 됨. 진노의 그릇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구원받지 못함, 행위로 구원을 추구함, 믿지 않음, 걸려 넘어짐, 지식이 없이 열심을 냄, 불순종함, 완고함, 자기들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함, 눈이 멀고 범법을 행하며 일시적으로 꺾여 있음, 복음의 원수,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해석 체계를 본문에 강요하는 것이다.

칼빈과 어저스틴, 맥아더, 파이퍼, 스프로울 등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단 1초도 칼빈주의 해석에 드리면 안 된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4
칼빈주의 편견을 제거하고
로마서 9-11장 바르게 읽고 해석하기

롬11:1-5, 11

지금까지 13회에 걸쳐서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강해, Hyper Calvinism

극단적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무조건적인 선택, 2중 예정

이런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칼빈주의자들은 늘 로마서 9장을 사용한다.

그러나 로마서 9-11장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8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진다. 9-11장은 팔호 삽입 장

사도 바울은 9-11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다. 왜? 유대인들 문제,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약속, 어떻게 되는가?
롬9-11의 주제: 육적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씨)은 어떻게 되는가?(롬9:3-4; 10:1, 21; 11:1-2,
26, 28)

카톨릭 교회와 다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

어거스틴/칼빈주의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며 무천년주의를 따르므로 9-11
장을 이상하게 해석함,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곧 왕국이고 예수님이 영적으
로 다스린다고 주장한다(영해).

이런 주장들로써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를 이룰 수 없다. 롬9-11이 해답을 준다.

생각해 볼 문제점

1.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국은 어찌 되었는가?
2.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3.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로 이방인들과 연계되어 있는가?
4.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이 났는가? 그러면 1948년 5월은 무엇인가?
5. 이스라엘(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남아 있는가?

9-11장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다.

다시 말한다. 9-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개개인의 구원 문제는 1-8장에 나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11장 28절을 기억하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복음과 선택은 완전히 분리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도 복음의 원수(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11장의 주제는 절대로 개인의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

9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내신 뒤 대다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배척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특수 관계로 인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 하면서 자기들의 선민 선택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 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10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하나님의 초청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한다(무조건 선택을 말한다)).

11장 불신을 통한 이스라엘의 넘어짐, 믿음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즉 7년 환난기 후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 통치 계획이다.

로마서 9장

다 같이 문맥에 따라 읽어보자

- 1-4, 이스라엘로 인한 바울의 근심
- 6-9, 문맥을 잘 보십시오. 1-9절이 복음에 대해 단 한 마디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마디라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들, 약속들,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9,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 당시, 지금 이스라엘 다수 불신,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메시아를 내는 민족의 선택(7절)
- 10-13, 야곱과 에서의 예, 메시아 내는 민족, 둘 다 개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야곱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실 권리가 있다. 메시아를 낼 민족으로 삼기 위하여,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롬9장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 선택
개인의 구원은 다른 이야기, 야곱, 이스마엘, 에돔, 이집트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 14-16, 하나님이 마음대로 민족을 택하시는 이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민족이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개인 구원은 이와는 다른 일이다.
- 17-18.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오를 택하신 이유 17,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은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 19-21, 하나님의 선민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 역시 개인의 구원 선택 이야기 아니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19절), 이것은 마치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면 성경은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이스라엘의 거역
개인의 거역과 민족의 거역 문제를 살펴보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롯이 야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절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 22-24,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으시다(22) 이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23-24).
- 25-26, 신약 시대 교회, 이방인 중심
이스라엘은 미래가 예정된 민족입니다. 이방인도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가 되자 미래가 예정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전 10:32, 교회 시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이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예정된 다른 민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교회에 예정된 미래가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유대인, 이방인(고전10:32), 이 세 민족은 각기 예정된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문맥이고 이것은 성경의 어디와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9. 27-29,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 이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소수이다.

28절, 단축되다. 속히 이루어진다. 유대와 이스라엘 멸망 및 포로 생활, 잠시 후 티투스의 예루살렘 파괴, 대다수 유대인 멸망, 오직 소수만 남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선택입니다. 즉 여기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입니다.

10. 30-33, 이렇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를 구하려 했기 때문(32)

11.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머리 국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유대인들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혹은 민족의 사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해석만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은 9장 뒷부분 설명, 32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하려다가 구원받는 자들이 적게 됨

1. 1-4,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 4절
2. 5-8, 율법의 의, 무언가 애를 써서 행위로 큰일을 하려는 것
3. 9-13, 그리스도의 의, 믿어야 한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12-13, 선택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4. 14-15, 이스라엘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즉 선택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전해야 한다.
5. 16-21, 복음이 선포되어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고도(18) 하루 종일 불순종한다(21): 구약 시대 내내 불순종, 그러나 너희 교회를 택한 이유: 이스라엘을 지극하려고(19). 그들은 듣고 믿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1. 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은 믿는 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도,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5). 미리 아심, 예정 선택(예지 예정 선택), 이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2. 7-10, 그들의 대다수는 지금까지 눈먼 상태이다.
3. 11-12, 그들의 걸려 넘어짐은 쓰러짐이 아니다

-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제쳐진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잠시 불순중
4. 13-14, 이방인들의 사도,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그들 중 일부 구원, 바울이 원하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 질투를 느껴 결국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5. 15-18, 이스라엘이 근본이고 너희는 접붙여졌다, 그 올리브 나무(이스라엘)는 아직 살이 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6. 19-22, 너희는 조심하라. 교만히 굴지 말고,
19-22절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부분의 말씀들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구절(22절)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칼빈주의자들과 정확히 같은 부분에서 오류에 빠졌습니다.
여기의 문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중 몇 개의 가지가 꺾인 것처럼 그들도 꺾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7. 23-24, 이스라엘 그들도 본래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8. 25-27, 그들의 최종 구원, 이것은 신비이다(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흠쳐다가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민족적인 구원, 26절의 야곱 습12-14를 보라. 마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9. 28-29, 대단히 중요함, 민족적 선택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하나님과 원수이다.
민족적 선택, 복음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개인 선택, 복음의 원수 불가능
선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10. 30-32, 그들도 결국 궁핍을 얻는다.
 11. 33-36,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다. 인류 역사 경영 계획
이스라엘 구약, 예수님, 그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
그들의 불순중, 이방인 구원의 길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결국 세상 끝에 이들은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개인들을 다루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모아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그들을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 결론: 칼빈과 어저스틴, 맥아더, 파이퍼, 스프로울,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자기 생각을 해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롬9-11장은 이스라엘 이야기
단 1초도 칼빈주의 해석에 빠지면 안 된다.

칼빈주의 바로 알기 15
존 맥아더 같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재권 구원(Lordship salvation)은 비성경적이다

롬11:1-5, 11

칼빈주의 바로 알기 시리즈, 두세 번 더하면 끝이 날 것이다.

오늘은 존 맥아더 목사 등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재권 구원(로드십 구원)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 위키 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Lordship_salvation_controversy

약속 구원:(Commitment salvation), 포기 혹은 항복 구원(Surrender salvation)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님(주인)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노예 혹은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한다.

주로 개혁 신학 하시는 분들, 1980년대 John MacArthur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의 일환으로 회개, 믿음, 성화, 굴복, 복종,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을 생산해 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실 때 사람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시므로 이런 것들이 없는 구원 고백(체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수 없다.

As a part of his saving work, God will produce repentance, faith, sanctification, yieldedness, obedience, and ultimately glorification. Since he is not dependent on human effort in producing these elements, an experience that lacks any of them cannot be the saving work of God."[3]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종말이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문제

맥아더 목사: 여러 면에서 좋은 분, 그러나 로드십 구원은 성경과 다르다. 그래서 목사로서 나는 이것을 가르쳐야만 한다.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젤리의 반박

(*) <https://www.middletonbiblechurch.org/salvatio/lordshrq.pdf>

하나님의 구원 조건(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로드십 구원 조건: 존 맥아더의 3 가지 책

1. 예수님이 전한 복음, 2. 믿음과 행위, 3. 믿기가 어렵다.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abbreviated GATJ), Faith Works (abbreviated FW) and Hard to Believe (abbreviated HTB)]

1. 그리스도를 따른다.
2.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
3.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
4. 스스로 약속해야 한다.
5.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
6.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7. 왕국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8.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9.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해야 한다.
10.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모든 재산을 드려야 한다.
11.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
12. 제자의 요구조건을 성취해야 한다....

맥아더는 약4:7-10이 구원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초청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4:8)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4:9)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라.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4:10) 주의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관찰

1. 로드십 구원의 조건은 죄인인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있다.

성경적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 의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휼에 기초를 두고 있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지느니라(롬4:5).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맥아더의 말: 우리는(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구원의 조건들을 나열한다.

2. 로드십 구원 조건을 보면 맥아더 등은 제자의 길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즉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 구원의 유일한 조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의 일, 그분의 말씀만 믿는 것이다.

제자도의 조건: 구원 뒤 성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므로 로드십 성화는 말이 되지만 로드십 구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3. 제자도의 한 조건: 우리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보다 주님께 더 충성을 보이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 가족, 소유, 생명보다 귀하게 주님을 여긴다.

즉 제자도의 조건은 마22:37을 다시 진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22:37).

그런데 로드십 구원 주창자들은 마22:37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마22:37은 10계명의 요약(마22:40).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위대한 명령과 십계명에 따라 우리는 다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한다. 만일 하나님을 최고로 최상으로 사랑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로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후1:15).

4. 맥아더는 HTB(믿기가 어렵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의 조건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람마다 소유가 다르므로 구원의 조건이 다 달라지게 된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영생의 조건은 주님이 각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무어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5. 로드십 구원의 모든 조건을 성취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맥아더는 구원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책 제목도 <믿는 것이 어렵다>이다.

그러면 로드십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극도로 최상으로 사랑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자기가 제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달성하였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 한 약속이 주님의 기대에 미침을 알 수 있을까?

삶의 영역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없는가?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죄로부터 돌아섰단 말인가? 혹시 어떤 면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언급된 모든 조건들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렇게 검증을 하면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더 실망이 크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그것 하나만 의지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지 않은가?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8-9).

하나님의 방법: 은혜와 믿음만으로 구원, 그 뒤에 구원에 따른 선한 행위(엡2:8-10)

로드십 구원, 은혜와 믿음과 행위(여러 조건들), 그러면 구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께 100%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가?

왜 이런 교리가 나오는가?

칼빈주의 5대 강령, 마지막,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택자라면 율법을 다 지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기록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록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을 바꾸면 안 된다.

신약 성경은 무려 100번 이상이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easy believism, 잠시 구원 설명 손들고 나와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것때문에 다른 극단으로 가서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Saving faith)는 무엇인가? 이분들은 꼭 구원하는 믿음 강조, 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것이다.

즉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안식하는 것이다.

결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항상 100%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제자도의 모든 조건을 실천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네 의로운 행위, 신실한 행위, 충성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5:12)

엡2:8-10을 기억하라.

데이빗 클라우드

(*) <https://www.wayoflife.org/database/repentancerevisited.html>

로드십 구원: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구원은 결코 완전한 복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신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전3).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구원, 아니다!

1. 구원은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다(마19:14). 이런 면에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쉬운 것이다. 그런데 easy believism과는 다르다. 영접 기도로 끝나는 것

2.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

3.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분만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와 경험을 바라보게 한다.

4. 구원은 반드시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구원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의 행위만 살피는 것은 맞지 않다.

바울의 고백을 보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롬7:18).

바울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런데도 여전히 옛 사람(육신)이 남아 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것(딤후1:12)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다.

나 자신, 변화된 삶, 경험, 확고한 충성 No!

성경의 요구,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기록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기록할지니라(벧전1:15).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 면에서 완전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에 대해 내가 바르게 집중하지 않을 나는 낙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 이미 오래 전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제야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다수 멤버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1.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모든 일에 주임으로 만들어야 하므로
2. 이런 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설교하므로
3. 의심이 있어도 구원은 아니라고 하므로
4.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가르치므로

이 경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친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한다.

구원의 확신 의심,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데이빗 클라우드, 구원받은 첫 해, 구원받고도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여러 차례 기도함

죄 문제, 과거 습관으로 인하여, 이때 구원 의심, 구원해 달라고 기도함

왜? 아직 믿음이 진리에 기초를 두지 않아서

문제 해결: 교회에서 칭의, 성화, 거룩함,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에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다.

로드십 구원은 칭의와 성화(제자도)를 혼동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

(*) 해리 아이언 사이드(1876-1951, 1929-1948까지 시카고 무디 교회 목사),

구원받은 뒤 젊은 시절에 구세군에서 복음을 선포함

거기서 그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아 자신의 옛 본성을 누르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죄성과 불완전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험(두 번째 축복)을 얻기 위해 기도, 금식, 울부짖기 등 갖은 노력

드디어 얻었다고 생각하고 간증 집회에서 자기가 이 경험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죄와 싸우는 자기를 발견함 너무나 낙심이 되어 정신 변동에 입원하였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나오자 그리스도를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함

그런데 그는 병원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경적 성화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에게 닮을 내리고 오랫동안 성경적인 설교자로 살았다.